

2019년

# 남북한 사회통합 안내서



**PSCORE**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 남북한 사회통합 안내서

펴낸이 : 김태훈

편집인 : 남바다

## 글쓴이

권영태 | 통일교육원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강사

박진성 | 서울 불광중학교 역사교사

송현진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김영지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정유진 | 미주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현인애 | 남북하나재단 이사, 북한이탈주민

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www.pscore.org](http://www.pscore.org)

[pscore@pscore.org](mailto:pscore@pscore.org)

[facebook.com/PscoreKorea](https://facebook.com/PscoreKorea)

[instagram.com/pscorekorea](https://instagram.com/pscorekorea)

[twitter.com/pscore911](https://twitter.com/pscore911)

[youtube.com/pscore911](https://youtube.com/pscore911)

※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남북한 사회통합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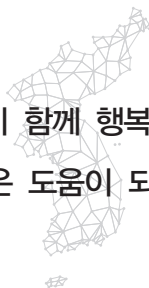
2019년



**PSCORE**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이 안내서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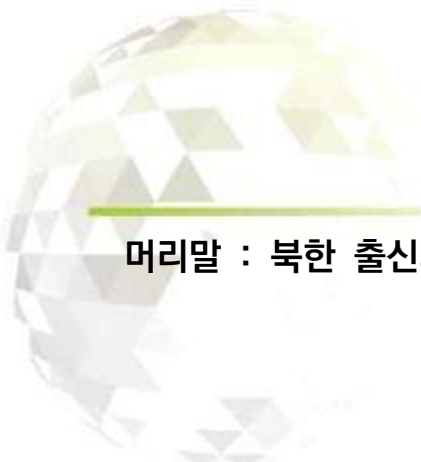


# 목 차

|                                                              |    |
|--------------------------------------------------------------|----|
| 머리말 : 북한 출신의 누군가를 만나다                                        | 7  |
| 1부. 남북한은 어떻게 하나이면서도 다른가                                      | 11 |
| 1. 남북한 공통 근현대사<br>(반만년을 이어온 한민족의 장구한 역사 vs.<br>70여 년의 짧은 분단) | 12 |
| 2. 남북한 역사교육의 차이                                              | 20 |

|                                                |     |
|------------------------------------------------|-----|
| 2부. 남북한 사람들의 생각, 외국인의 시각                       | 52  |
| 3. 남북한 사회통합을 바라보는 탈북민의 시각                      | 53  |
| 4. 남한 주민들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 인터뷰                      | 107 |
| 5. 남북한 사회통합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                      | 155 |
| 3부. 남북한은 어떻게 이웃으로 살아갈까                         | 168 |
| 6.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려면, 남한주민과<br>탈북민이 서로 이웃으로 살아가려면 | 169 |

※ 탈북민의 시각으로 보는 통일과 한국사회에 대해서는  
‘3. 남북한 사회통합을 바라보는 탈북민의 시각’ 챕터를 참조하세요.



## 머리말 : 북한 출신의 누군가를 만나다

북한에서 온 누군가와 만나게 되는 일이 있을까?

굳이 통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북한출신 사람들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 예로, 우리 주변에 탈북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남쪽으로 넘어온 탈북민들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늘 대중교통 안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고(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의 탈북민 수는 3만 3천명을 넘었다),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과 직접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

어떤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북한출신 사람과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은 탈북민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이 북미대화가 잘 진전되어 정치적으로 조금 더 개방이 된다면 북한에 거주하는 누군가가 나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과연 그들과 문제없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과 한국 그리고 미국이 더 많은 대화와 협의를 진행할수록 개인들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나의 삶에 큰 변화가 닥쳐오면 얼마나 준비 했는가에 따라 기회가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준비에는 북한에서만 살아왔던 누군가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 나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혹은 상대

방은 어떤 대화의 방식을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와 같은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볼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당장 나는 북한에서 생활해온 사람들을 만나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해하고 교류하는 상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TV에서 탈북민들이 나와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된다. 탈북민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누군가 처음 만나는 상대방에게 혹은 계속 만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탈북민인 사실을 밝히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크게 당황하거나 이전과 다르게 대하는 게 느껴진다고 한다. 대화 상대방과 언어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탈북민이 주위 사람들과 똑같은 외모와 옷차림을 하고 있다고 해도, 당황하는 상대방의 표정을 금세 탈북민들이 알아차리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관계를 닫아버리게 된다.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과의 대화도 여러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교육과 다른 사회구조에서 살아온 사람과의 대화에는 조심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다. 하물며 소개팅 상대를 만날 때에도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것이 많은데, 평생을 다른 체제 속에서 다른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과

는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대화하는 게 좋을까

본 단체는 인권단체로서 인간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 북한이 조금 더 정치적으로 개방되었을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경우를 고려해 보았다.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보았다. 남한출신, 북한출신, 그리고 북한주민과 교류를 해본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을 만나 본인들이 경험한 이야기와 보다 원활한 대화를 위한 팁을 들어 보았다.

본 안내서의 1장에서는 남북한이 어떻게 하나의 역사를 공유해 온 같은 민족인지를 확인하고, 2장에서는 남북한의 역사교육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3장에서는 탈북민들을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실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고 여러 경험을 한 탈북민들이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들과는 어떻게 대화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은지 깊은 통찰을 주었다. 4장에서는 탈북민들과 관계를 맺어온 남한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들어보고, 5장에서는 외국인들 중에 북한에서 구호사업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어 북한에 직접 수년간 다녀왔거나 남북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경험을 통해 외부의 사람들은 우리 남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차이점과 공통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 알아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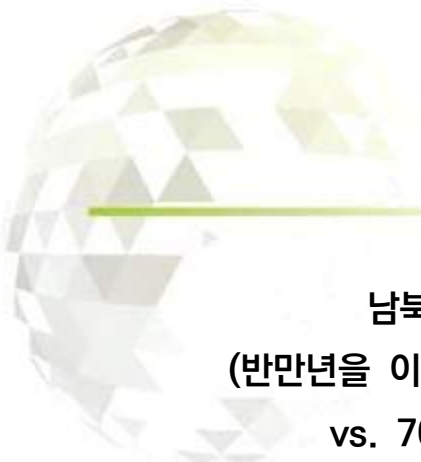
통일에 대한 강연행사를 함께한 한 탈북민의 이야기로 머리말을 마무리 한다.

*“통일은 마음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 채서연*

## 제1부

# 남북한은 어떻게 하나이면서도 다른가



# 1

## 남북한 공통 근현대사 (반만년을 이어온 한민족의 장구한 역사 vs. 70여 년의 짧은 분단)

권영태

통일교육원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강사

한반도는 중국, 일본 지역과는 다른 한민족이 수 천 년 전부터 통치권을 행사한 곳이다. 기록에 따르면 우리 민족은 아주 먼 고대에는 오늘날 중국의 동북방은 물론 황해 쪽 중국 연안 일부는 물론, 일본의 꽤 넓은 지역까지도 통치한 바가 있다. 오늘날 중국과 한국(북한지역 포함)의 국경선은 15세기 초에 형성되었다.

역사상 한민족은 두 차례 외세의 지배를 받았다. 고려시대 몽골의 관할 하에 있었고, 20세기 초반 36년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는 세상에 자랑할 만하다.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아시아 동쪽 끝부터 유럽의 서쪽 끝까지 대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고려는 가장 최후까지 맞서 싸운 나라 중 하나였다.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문자 그대로

줄기차게 벌어졌다.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형성되었다.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해방된 새 나라를 공화정으로 만들려는 목표를 세웠다.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은 1925년 조선공산당이 결성된 이후 본격화되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자들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로 지하에서 활동했다. 나중에 북한 정권을 장악하는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다. 민족주의 계열이든 사회주의 계열이든 자력으로 독립을 쟁취할 정도의 힘을 축적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불행하게도 해방은 되었지만, 한반도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섰다. 물론,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하나의 독립국가를 수립하려고 시도했다. 그렇지만, 서로 방향이 달랐다.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은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을 분할하여 점령하였다. 이로써 한반도는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분단이 되었다. 남쪽은 민족주의자들이 미국의 지지 하에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했다. 북한은 사회주의자들이 소련을 등에 업고 독재체제를 수립했다.

한반도는 세계적인 냉전의 첨예한 전초기지가 되었다. 독일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를 격퇴하기 위해 2차 대전 동안 미국은 사회주의 소련과 연합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사회주의의 세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같은 연합국이었던 소련과의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갔다. 미소 간에 비록 직접적인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양국의 대결은 전쟁과 마찬가지로 치열했다. 독일과 일본은 사회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련에 대한 전진기지가 되었다. 일

본의 항복을 관리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점령했던 한반도 남쪽 또한 일본과 함께 미국의 소련에 대한 전진 기지가 되었다.

분단은 전쟁을 불렀고, 전쟁은 분단의 골을 더 깊게 했다. 또한 분단은 남쪽의 민주주의 발전도 상당한 기간 동안 가로막았다. 1953년, 6.25가 휴전으로 종료된 이후, 남북은 격렬한 체제 대결에 돌입했다.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확고한 동맹체제를 형성했다. 미국의 관리 하에 있던 일본과 삼각동맹이 이뤄졌다. 북한은 소련, 중국과 함께 삼각동맹을 맺었다. 남북은 체제 대결을 지속하면서 각자 서로 다른 발전의 궤적을 걸었다.

남북의 체제 경쟁 초기에는 북한의 역량이 우세했다. 김일성은 6.25 이후 정권을 확고히 장악하고 반대세력을 숙청했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사회주의 공업화를 이뤘고, 해방 직후 개인들에게 분배했던 토지까지 협동농장으로 만들었다. 정치적으로는 김일성의 일인 통치체제가 안착되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경제적으로는 점차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경제가 가진 본래적 문제점도 드러났고, 정권 초기 온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룩한 경제성장도 한계에 봉착했다. 학자들 간에 의견이 완전히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가 역전된 것으로 본다. 그 기간 동안 남한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에도 성공했다. 민주화는 6.25 후 한 세대 만에 이룬 세계사적 모범이었다.

1989년 세계적인 냉전체제는 무너졌다.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탈냉전은 북한의 어려움을 가속화했다. 북한이 정권 수립 후 수십 년간 사회주의진영으로

부터 받아온 상당한 지원이 끊기거나 대폭 축소되었다. 내부적으로 이미 경제 발전의 한계에 다다랐던 북한은 큰 위기에 빠졌다.

1994년 북한의 첫 권력자인 김일성은 육체적 수명이 다했고, 아들인 김정일에게 정권이 넘어갔다. 김정일도 경제 문제에서 뾰족한 수는 없었다. 북한의 어려움은 계속 되었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은 적어도 수 십 만 명, 많게는 수 백 만 명으로 추정되는 인민들의 아사사태를 겪었다. 북한은 수 십 년 간 견지해온 자립경제노선을 그대로 고수했지만,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심지어 쌀과 비료 등 남쪽의 지원도 수용했다.

반면, 남쪽은 1990년대를 보내고 2000년대로 들어서서도 경제성장이 계속 되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전 국민적인 캠페인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인 IT산업이 발전했다. 수많은 벤처기업가들이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크게 성장했다. 계속된 경제성장으로 1996년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했다. 2009년에는 DAC(개발원조위원회)에도 가입했다. 1970-80년대 경제성장을 통해 한국은 이미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로 평가된 바 있었다. DAC 가입으로 과거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1994년 미국은 북한과 직접 양자협정을 체결했다. 그렇지만 북미 간에 처음 맺은 양자협정은 그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은 이후 6자회담을 추진했다. 남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한 회담을 수 년 동안 지속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했다. 각

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중국의 태도가 문제였다. 6자회담에서 중국은 중재자 또는 사회자의 역할을 자임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았다.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으로 3대 세습에 성공한 북한은 결국 핵무기 개발에도 성공했다. 미국 본토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도 개발하였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남북정상을 개최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돌파구는 열리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핵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영토에 사드까지 배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사드는 미국의 MD 체계의 일환으로 이해되어 중국이 강력 반발했다. 중국 톱 밑에 바로 미국의 첨단군사물자가 들어오면서 자신들을 위협한다는 논리였다. 물론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드가 중국을 전혀 겨냥하지 않으며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외교적 연사로 그치지 않고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사드 문제를 이유로 한 중국의 개입은 거의 내정간섭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6.25 휴전 이후 중국이 사드 문제만큼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개입한 적은 없었다. 사드 배치를 즈음한 중국의 행태는 여러 각도에서 분석되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순망치한의 논리를 견지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처럼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6.25 당시 맥아더를 필두로 중

국 국경선까지 유엔군이 밀고 들어오자 미국과 직접 국경을 대치하지 않기 위해 전격 개입한 바 있었다. 한편 중국의 엄청난 국력 성장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했다. 10여 년 뒤 한국과도 수교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뒤 계속된 경제성장은 세계의 공장을 넘어 어느덧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의 반열에 오르는 원동력이 됐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도 중국은 미국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곳곳으로 진출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과거 냉전시기 소련의 지위를 중국이 대체했다고 보기도 한다. 현재의 미중 관계를 과거 미소 관계와 같이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같다고 보는 쪽에서는 현재 동북아는 신 냉전기에 돌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일시적인 갈등은 있겠지만 미중 간의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중관계를 어느 쪽으로 보든 중국의 부상으로 북한의 입지가 강화됐다. 북한은 탈냉전 직후 수 십 만 또는 수 백 만의 인민이 굶어죽던 경제적 어려움도 극복했다. 핵무기 개발에도 성공했다. 중국은 핵무기 개발에 따른 북한 제재에는 동참하고 있지만, 직간접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다시 상수가 되었다. 19세기 중반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는 완전히 중국의 세력권 하에 있었다. 섬 나라였던 일본만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뿐이었다. 조선은 공식으로 사대교린의 외교정책을 채택했다. 사대교린은 큰 나라 중국을 섬기고, 이웃한 작은 나라와 교류한다는 정책이다. 중국은 작은 나라들을 오랑캐라고 불렀고, 한민족도 동쪽의 오랑캐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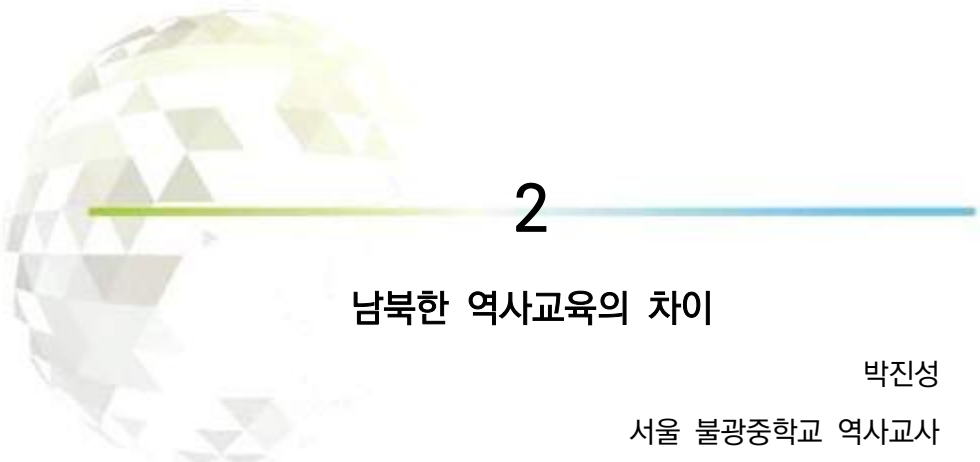
유럽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동아시아까지 간헐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도 아시아 사람들은 중국이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서양 나라들도 처음에는 중국을 잠자는 사자로 두려워했다. 그렇지만 아편전쟁(1차 1839~42년, 2차 1856~60년)을 겪으면서 중국의 국력이 서양과 비교해 얼마나 열악한지 알게 되었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아시아의 패권을 잃었다. 이에 따라 유럽 제국과 일본의 쟁탈전이 벌어졌고, 일본은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이 수십 년 동안 아시아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탈냉전 이후 소련의 영향력 축소로 미국의 단일한 패권체제가 형성되는가 싶었지만, 개혁개방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중국은 다시 과거의 지위를 거의 회복하였다. 오늘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반만년에 달하는 우리 민족의 장구한 역사적 시간에 비하면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분단의 역사는 겨우 70여 년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다. 비록 강대국이 한반도를 나눠서 지배하려고 했어도 우리 민족이 단일하게 뭉쳐 대응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고려시대 몽고의 침략에 쫓겨 강화도까지 들어갔지만 함께 뭉쳐 수 십 년을 항전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물론 남과 북은 하나의 통일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그렇지만 남과 북이 지향하는 방향은 확연히 다르다. 남쪽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에서 세계사적인 인류의 발걸음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넓은 이념에 기초한 독재정권을 강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자주 노선을 내세웠지만, 자기 인민들의 생존도 건사하지 못할 정도의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뿐만 아니라 3대 세습과 함께 세계 최악의 인권후진국이 되었다. 현재 인류사의 진행 방향을 보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남쪽이 더 성장하여 전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 필연으로 보인다. 설혹 다시 북한이 경제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핵무기를 통한 북한의 세계 평화 위협은 계속 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20세기 세계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독재와 사회주의보다 우월함을 이미 증명했다.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 체제전환 한 지 벌써 한 세대가 지났다. 지금 세계는 중동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2019년 홍콩에서도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분단의 시간은 민족사의 장구한 역사적 시간 속에서 한 때의 일탈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후대들이 기록하게 되려면 오늘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내일 한민족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내가 오늘 바른 길을 택할 때 내일 한반도의 미래는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게 될 것이다. 남쪽의 역량 증대를 통해 한반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열리게 된다.



## 2

### 남북한 역사교육의 차이

박진성

서울 불광중학교 역사교사

#### 1. 들어가며 : 우리는 북한 역사교육을 왜 알아야할까?

남과 북은 70년 분단의 역사로 지내오고 있지만, 동시에 5,000년에 가까운 세월인 고조선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같은 기억을 나누는 것은 서로를 묶는 동질감을 자아내고 “남과 북에서 살아가는 한반도 주민들은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가치를 확립해준다.

역사교육은 서로를 묶는 기억을 전승하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다. 역사교육의 주된 목적이 국가나 민족의 기억을 전승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분명 남과 북이 평화와 공존, 나아가 통일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남과 북의 역사교육이 서로 공유하는 기억들을 전하는 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남과 북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찬란한 문화유산과 이 땅을 거쳐 간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 역사를 살아가던 백성들의 이야기와 때로는 쓰라리면서도 자랑스러

운 저항의 역사는 우리를 ‘한민족’으로 묶고 있다. 교원 출신의 한 북한이탈주민이 필자에게 “해석은 다르지만 같은 사실을 배웠기에, 남한에서 한국사를 따로 공부할 때 위화감을 겪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는 서로 간의 기억이 다르다는 전제 못지않게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해석이 다르다’는 말에 담긴 의미는, 우리는 같은 기억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서로 경험해보지 못한 이질적인 기억을 지금도 만들어 가는 중이다. 우리는 70년의 세월을 다른 역사적, 사회적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길을 걸어왔다. 서로 다른 지점에서 서서 바라보는 기억이 완전히 서로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 바라보는 지점에서 우리가 가진 기억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해본다면 어떨까?

## 2. 남북한 역사교육의 목표 비교

어떤 이들에게 역사 과목은 굉장히 따분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건 본질적으로 역사가 재현이나 체험이 불가능한 과거 인류의 행적들을 다루기에 쉽사리 내용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과목이라도 역사를 가르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와 목표가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역사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역사’는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이 발전해 온 과정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현재와 미래 사회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와 세계 각 지역의 역사 발전 과정을 인식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인간의 삶이 향상되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능동적으로 학습한다. 학습자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며 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거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역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가. 우리나라와 세계 역사의 주요 사실과 개념을 이해하고 상호 연관성을 파악한다.
- 나.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사와 세계사의 정치적 흐름을 이해한다.
- 다. 오늘날의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여 현대 세계와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확대한다.
- 라. 다양한 역사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유추하여 역사적 사실을 종합적,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역사적 사고력을 기른다.
- 마.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역사 자료를 검토하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문화와 전통,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를 기른다.<sup>1)</sup>*

우리나라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위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의 목표를 담고 있다. 좀 더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의 목표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아래의 분류는 보통 역사교육을 전공하는 학자와 현직 교사들이 숙지하고 있는 역사를 배우는 대강의 이유라 할 수 있다.

- ① 교훈의 획득
- ② 유산의 전승
- ③ 현재의 이해
- ④ 인격과 교양의 육성
- ⑤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력의 함양

그렇다면 북한에서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에 대해서는 아마 독자들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일당독재와 김일성 일가의 영향력이 큰 정치사회적 특징이 역사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대강의 방향을 설정했다. 정말 그런지를 북한 청소년들이 처음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서문을 통해서 확인해보자.

---

1) 교육부, 『2015 개정교육과정 별책 7 사회과교육과정』, 교육부, 2015, p.9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하나의 피줄을 이으며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여 온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랑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력사를 하나하나 파고들면 조선 민족의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우리 민족을 더욱 빛내여 나갈 마음도 굳게 가지게 됩니다. 학생들이 조선력사를 학습하는 목적은 지난날의 력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고 조선혁명을 더 잘하자는 데 있습니다.<sup>2)</sup>

이상의 서문을 보다시피, 북한에서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역사교육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물론 역사교육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북한 교육이 지향하는 일반적인 목표이지만, 특별히 역사교육은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김일성 일가를 미화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쓰인다. 안타깝게도 이제껏 수많은 나라들과 지배자들이 그랬듯이-거기에는 남한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지만-굵직한 정치사회적 사건과 인물들을 평가하고, 공통된 기억을 바탕으로 국가와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목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역사 과목은 사상화 교육의 첨병 과목으로서 그 교육 목표를 우선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역사교육은 체제 유지 및 지배자 일가 미화용으로 쓰이는 것 외에도 다른 기능을 포함하고 하다. 계속 서문을 한번 읽어보자.

---

2) 차영남 외 3인, 『조선력사 1』, 교육도서출판사, 2013, p.1.

초급중학교 제1학년《조선력사》과목에서는 원시시대로부터 고조선과 고구려시기까지의 우리나라 역사 발전 과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조선력사 과목에서는 우리가 체험해 보지 못한 오래전의 사실들을 배우는 것만큼 창조적인 탐구와 사색을 많이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학습자료들을 서로 연관시켜보면서 학습하여야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조선력사 학습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잘 알고 창조적 능력을 키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여 나갈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야합니다.<sup>3)</sup>

위의 서문을 살펴보면 역사 학습을 통해 깊이 있는 지식과 사고력의 증진에 대한 언급이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 ‘강성국가’건설이라는 점 때문에 역사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한계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 역사교육의 전체적인 목표를 살펴보았다. 궁극적인 지향점의 차이가 있지만, 민족 대대로 내려온 오랜 문화유산들을 전한다는 점에서 남과 북 모두의 공통성을 찾을 수 있었다. 변함없는 사실은 남과 북이 서로 역사를 공유한다는 점이고 우리는 공유하는 역사를 다른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같은 눈으로 보기도 한다. 우리는 이제 그 ‘같이면서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좀 더 알아보고자 한다.

---

3) 앞의 책, p.1.

### 3. 북한 역사교육 안을 들여다보기

#### 1) 북한 역사교육과정

북한 초중등교육에서 역사를 독립된 과목으로 처음 배우는 학년은 초급중학교 1학년이다. 중학교 때 역사 과목을 독립된 교과서로 배우는 점에서 남한의 과목 구성과 흡사하다. 남북한 학교에서 역사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편성하고 있다.

| 과목명                                  |           | 남한<br>학제        | 북한<br>학제         | 과목명                   |                                     |
|--------------------------------------|-----------|-----------------|------------------|-----------------------|-------------------------------------|
| 한국사<br>영역                            | 세계사<br>영역 |                 |                  | 역사영역<br>(한국사,<br>세계사) | ‘혁명역사’<br>영역                        |
| 5학년,<br>6학년 사회                       | -         | 초등<br>학교        | 소학교              | -                     | 김일성,<br>김정숙,<br>김정일,<br>김정은<br>어린시절 |
| 역사<br>(교과서가 역사①, ②로<br>구성되어 2년 간 학습) |           | 중학교<br>1학년      | 초급<br>중학교<br>1학년 | 조선력사1                 | 김일성,<br>김정숙,<br>김정일,<br>김정은<br>혁명활동 |
|                                      |           | 중학교<br>2학년      | 초급<br>중학교<br>2학년 | 조선력사2                 |                                     |
|                                      |           | 중학교<br>3학년      | 초급<br>중학교<br>3학년 | 조선력사3                 |                                     |
| 한국사<br>(수능 공통필수)                     |           | 고등<br>학교<br>1학년 | 고급<br>중학교<br>1학년 | 력사1                   | 김일성,<br>김정은<br>혁명력사                 |
| 동아시아사, 세계사<br>(수능 탐구영역 선택)           |           | 고등<br>학교<br>2학년 | 고급<br>중학교<br>2학년 | 력사2                   | 김일성,<br>김정숙,<br>김정일,<br>김정은<br>혁명력사 |
|                                      |           | 고등<br>학교<br>3학년 | 고급<br>중학교<br>3학년 | 력사3                   | 김정일,<br>김정은<br>혁명력사                 |

남한의 역사교육과정은 크게 ‘한국사’와 ‘세계사’의 이원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기초적인 한국사를 인물, 사건 중심으로 배우다 중학교에서 비로소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사와, 서양사와 동양사를 아우르는 세계사로 구성된 별도의 ‘역사’ 과목을 배운다. 이후 근현대사 중심의 한국사 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공통필수 과목으로 배우며, 이후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를 동아시아 관점에서 살펴보는 동아시아사 과목과 서양사와 동양사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세계사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북한의 역사교육과정은 이원적 구성이 조금 다르게 이뤄져 있다. 크게 일반적인 역사 내용을 다루는 ‘역사’ 영역과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그들의 활동과 그 맥락에서 역사를 살펴보는 ‘혁명역사’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사실 ‘혁명역사’ 계통의 과목은 존재 목적이나 교과 내용을 보았을 때 역사 과목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정권 정통성을 선전하고 유지하기 위한 과목으로 ‘정치사상 교육 과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다만, ‘혁명역사’에서 다루는 내용이 한국 근현대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실질적인 한국 근현대사 교육이 이뤄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하였다. 이제 단위 구성과 내용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 2) 북한 역사교육 편제와 내용

### ① 학교급별, 학년별 단위 편제

각 학교급별과 학년별 역사교육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대략 다음의 단위 내용으로 구성된다.

| 북한학제         | 과목명    | 단원 구성                                                                                                                                                                                                                                                 |
|--------------|--------|-------------------------------------------------------------------------------------------------------------------------------------------------------------------------------------------------------------------------------------------------------|
|              | 역사영역   |                                                                                                                                                                                                                                                       |
| 초급중학교<br>1학년 | 조선력사1  | 1. 우리 땅에서 산 첫 사람들<br>2. 우리 민족의 첫 나라, 고조선<br>3. 천년 강국 고구려                                                                                                                                                                                              |
| 초급중학교<br>2학년 | 조선력사2  | 1. 해동성국 발해<br>2. 우리민족 첫 통일국가 고려                                                                                                                                                                                                                       |
| 초급중학교<br>3학년 | 조선력사3* | (개정 교과서 확인 불가)<br>(2002년 고등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왕건의 고려 건국부터 6.10만세 항쟁까지 다루고 있음)                                                                                                                                                                               |
| 고급중학교<br>1학년 | 력사1    | <b>제1장 원시 공동체 사회와 노예 소유자 사회</b><br>1. 원시 공동체 사회<br>2. 노예 소유자 사회<br><b>제2장 세 나라와 발해 및 후기 신라, 세 나라 시기의 세계</b><br>1. 고구려를 비롯한 첫 봉건국가들<br>2. 발해와 후기 신라<br>3. 세 나라 시기의 세계                                                                                  |
| 고급중학교<br>2학년 | 력사2    | <b>제1장 첫 통일국가 고려</b><br>1. 고려의 성립과 국토의 통일<br>2. 고려-거란전쟁<br>3. 12세기 후반기 농민 전쟁<br>4. 몽골 침략자들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br>5.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으며 왜구를 물리치기 위한 투쟁<br>6. 고려의 문화<br><b>제2장 조선봉건왕조</b><br>1. 조선 봉건왕조의 성립, 항길도농민전쟁<br>2. 임진조국전쟁<br>3. 17세기 외래 침략자를 물리치기 위한 인민들의 |

|              |        |                                                                                                                                                                                                                                                                                                                                                                                                                                                                                                                                                                                                                   |
|--------------|--------|-------------------------------------------------------------------------------------------------------------------------------------------------------------------------------------------------------------------------------------------------------------------------------------------------------------------------------------------------------------------------------------------------------------------------------------------------------------------------------------------------------------------------------------------------------------------------------------------------------------------|
|              |        | <p>투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평안도 농민전쟁</li> <li>5. 조선 봉건왕조 시기의 문화</li> </ol> <p><b>제3장 고려조선 봉건왕조시기의 세계</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봉건사회가 지속된 아시아</li> <li>2. 암흑시대의 유럽</li> <li>3. 지리적 발견과 미국의 형성</li> <li>4. 자본주의 출현과 해외침략, 그를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li> </ol>                                                                                                                                                                                                                                                                                                   |
| 고급중학교<br>3학년 | 역사3★4) | <p>(개정 교과서 확인 불가, 2008년 고등중학교 6학년<br/>기준으로 다음의 단원을 다루고 있음)</p> <p><b>제1 장 일제의 조선강점, 반일의병투쟁과 애국문화운동</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905년 일제의 조선강점</li> <li>2. 반일의병투쟁</li> <li>3. 부르조아 민권운동과 애국문화운동</li> </ol> <p><b>제2장 1919년 3.1 인민봉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li> <li>2. 1910년대 반일독립운동</li> <li>3. 3.1인민봉기</li> </ol> <p><b>제3장 3.1운동 후 대중운동의 성장과 초기 공산주의<br/>운동</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제의 교활한 문화통치</li> <li>2. 부르조아 민족운동의 쇠퇴</li> <li>3. 3.1인민봉기 이후 대중운동의 성장과 초기<br/>공산주의 운동</li> <li>4. 19세기 후반기-20세기 초의 문화)</li> </ol> |

4) \*표시는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확보하지 못한 교과서로, 본문에서는 그  
에 대응하는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참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단위 편제와 구성에서 추출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② 북한 역사 교과 내용 조직 개요

북한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 내용이 교과서에서 조직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급중학교에서는 주제로 구성하여 이야기 형태의 역사를 배운다. 보통 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여(시대의 개막과 전쟁, 멸망 등) 약간의 이야기체 서술과 함께 실려서 전개되는데 이 중에는 인물에 대한 일화도 포함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전체적인 제도와 시대적 특징을 살펴보기 보다는 시대의 변화와 중요 인물들의 역사적 행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적인 구성과 서술이 눈에 띈다.

고급중학교에서는 ‘계열성’에 따라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도 좀 더 심화된 내용 구성을 보인다. 먼저, 김정은 집권 후 이뤄진 교육과정 개편으로 그동안 ‘세계력사’라는 별도의 과목으로 분리되어 있던 세계사 내용이 한국사 단위 뒤로 편성되어 들어와 있다. 유기적인 내용연계는 아니지만,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건의 배경부터 전개과정까지 좀 더 자세한 과정을 실어 놓았다. 다만, 주제중심의 구성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 북한 정권 차원에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많이 간략한 편이다. 예를 들면 남한에서는 구체적인 정치기구 및 제도와 사회경제제도, 불교, 유교 등 문화 사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데 반해, 사건과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전쟁, 농민봉기 등에 대한 설명은 중단원 혹은 대단원 단위로 따로 편성하여 남한보다 훨씬 자세하지

만 왕사나 제도사와 등 다른 내용은 한 두줄로 간단하게 설명하거나, 고급중학교 단계에서도 남한보다 훨씬 간략하게 설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③ 교과서 서술상의 특징 1 : 짙은 민족주의적 성향

북한은 스스로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지만,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한 계급 간 연대를 강조하는 정통 사회주의와 다르게 민족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짙다. 처음 학생들이 접하는 중학교 ‘조선력사1’ 교과서 표지 삽화가 1994년 김일성의 지시로 대대적으로 ‘개건’된 ‘단군릉’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단군릉을 원형과 완전히 다르게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로 개건하고, 그것이 삽화에 실렸다는 것은 은연중에 정권의 당위성과 우월성을 민족사적 측면에서 강조하고자 함으로 볼 수 있다. 특히나 고조선의 중심이 ‘평양’, 곧 북한의 수도임을 강조하고 이곳이 ‘세계 문명의 중심 중 하나인’ ‘대동강 문화’였다는 서술은 마치 고조선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문명 중 하나이고 그 옛 중심 평양에 자리한 지금의 북한 정권은 한반도를 대표하는 정통성 있고 뛰어난 국가라는 것을 과시하는 셈이다.<sup>5)</sup>

자연스럽게 고조선이 끝난 직후 이어지는 삼국시대의 내용은 삼국 중 고구려 중심으로 흘러간다. 고구려의 영역 대부분이 북한 정권의 영토와 겹치는 데다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나라라는 점에서 민족 역사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좋은 소재가 된다. 또한 중국과 지속적인 투쟁과 저항을 해왔던 고구려사는 현재 대외적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 정권이 그들의 저항 의지를 불태울 수 있게 할 연료와

---

5) 오영철 외 4인, 『고급중학교 1학년 역사』, 2013, p.33~35.

같은 주제라 할 수 있다. 물론, 고구려의 영역과 현재 북한 영토의 중첩은 북한 정권의 성향을 떠나서 남한에 비해 풍부한 유적과 유물 자료를 접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흐름은 첫 역사과목인 ‘조선력사1’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고구려를 중심으로 고대사를 서술하면서, 신라는 중국 당나라와 야합하여 민족을 배신한 ‘매국행위자’로 서술이 된다. ‘생각하기’ 질문에서 ‘신라의 봉건통치배들이 행한 악행’을 묻는 것을 보면 북한에서 신라가 취급받는 위치를 알 수 있다. 신라는 비굴하게 당나라에게 빌붙고 강력한 민족 국가를 이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는 것이기에 이런 사대주의적 행태를 보인 신라는 당연히 좋지 않는 평가를 받아야한다는 것이 북한 역사교육의 기본입장인 것이다.<sup>6)</sup> 때문에 북한의 역사교육에서는 ‘삼국통일’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 당연히 민족 최초의 통일이라는 수식어는 붙이지 않는다. 그저 신라의 역사가 고구려 멸망 이후 지속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 북한의 해석이다. 2013년에 개정되어 사용 중인 현행 초급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아예 신라 단원은 없이 ‘발해’에 부속되어 존재만 언급이 되며, ‘고구려-발해’로 정통성을 이으며 발해를 대단원 하나로 편성하였다. 신라에 대해서는 고급중학교 단계로 넘어가서야 비로소 배우고 ‘통일 신라’라는 말 대신 ‘후기 신라’라는 이름으로 배운다.

대신 ‘민족 최초의 통일’이라는 수식어는 ‘고려’에 붙는다. 옛 삼국 지역을 비로소 아우르는 통일이면서 고려가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였다는 점이 훨씬 더 진정한 의미의 통일에 가깝다고 느낀 셈이다.

---

6) 김광수 외 4인, 『조선력사2』, 교육도서출판사, 2014, p. 7.

동시에 고려 역사 전반에 대한 시선도 상당히 우호적인데, 고려가 몽골의 침입까지 보여줬던 대외 항쟁의 역사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고려 역사에서는 다른 곳의 구성과 다르게 전쟁사와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으며 그 내용도 각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전술적 설명이 상세하게 다뤄진다.

이러한 서술이 다시 반전되는 것은 조선시대사 서술부터이다. 고려 사회에서 뿌리 깊게 내린 ‘사전’ 문제(토지 문제)에 대한 개혁으로 출발하는 조선 왕조의 수립을 이성계의 욕심과 몇몇 지배계급의 이익에서 그 동기가 비롯되었다는 서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고려는 고구려와 발해의 옛 영토를 찾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던 중 뜻하지 않는 이성계의 반역으로 무너졌다는 해석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역시나 사대주의적인 행태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 역사교육에서는 조선을 그 출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나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에 대한 ‘탐구’ 질문에서는 처음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뒤, 그에 대한 이유를 찾는 형태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sup>7)</sup> 또한 조선왕조의 전반적인 통치 시스템이 간략하게나마 설명되는 ‘고급중학교 역사2’에서 통치제도에 대한 모든 성격을 ‘지배계급의 착취’를 위한 것으로 규정해버렸다. 대외적으로 ‘사대주의’를 표방한 점이 북한에서는 조선을 평가 절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외세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sup>8)</sup>

---

7) 질문은 다음과 같다. ‘위화도 회군은 사대주의적 역적행위였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한영철 외 4인, 『고급중학교 2학년 역사』, 교육도서 출판사, 2014, p.48.

8) 위의 책, p.47~50.

④ 교과서 서술상의 특징 2 : 사회주의적 사관의 흔적, 그리고 우상화

‘백두혈통 세습’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김일성 일가 개인의 왕국이 되어버린 북한을 정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형식상으로나마 사회주의적 역사 발전관에 입각한 서술의 특징이 보인다. 교육과정에서는, 주제와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한 ‘초급중학교 조선력사’를 배우고 나면, ‘고급중학교 력사’에서는 ‘시기적 고찰’을 통해 ‘역사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사회주의 역사관에서 보이는 역사 발전의 단계와 시대변화의 구조들을 배운다.

사회주의 이론가 카를 마르크스는 역사 발전을 5단계로 나누어 그 법칙성을 규명하고, 최종적으로 인류 역사는 ‘공산주의 사회’를 종착점으로 삼을 것이라는 단선적 사관을 주장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는 다음과 같이 발전하고, 이것을 통해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원시 공산사회 → 고대 노예제 사회 → 중세 봉건 사회 →  
근대 자본주의사회 → 공산주의 사회

각 시대가 변경되는 기준을 마르크스는 유물론적 사관에 입각해 경제적 생산 수단과 생산 관계의 변화로 잡았으며, 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경제적 생산 관계를 둘러싼 지배자와 피지배자들의 갈등과 투쟁이 벌어지며, 이 과정에서 변증법적으로 역사가 발전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인류의 마지막 계급 사회로 피지배자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중심이 되어서 ‘혁명’을 통해 계급을 없애고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철폐되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

는 것이 마르크스가 분석한 역사의 골자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적용해보면, 현행 ‘고급중학교 역사’의 단원 구성과 그 내용 구조를 살펴볼 때 대략 아래와 같은 형태로 한국 역사의 발전과정을 상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래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현행 ‘고급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나오는 대단원, 중단원 명을 사용한 것이다.

원시 공동체 사회 → 노예 소유자 사회 →  
세나라 · 고려 · 조선봉건왕조 → 자본주의적 관계 발생 → 혁명

위와 같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법칙에 따라, 조선 후기부터 사회주의 혁명 이전 단계인 ‘자본주의적 관계 발생’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고 규정하며, 3.1 운동까지 지속된 지식인과 관료 주도의 여러 개혁 운동(갑신정변, 갑오개혁 등)과 민족 운동(독립협회, 애국계몽운동 등) 등을 ‘부르조아 개혁’ 그리고 ‘부르조아 민족운동’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진보적인 색채를 띤 ‘부르조아’ 주도의 개혁과 민족운동은 3.1 운동에서 보여준 민족대표 33인의 비저항적 태도, 부르조아 민족주의자들의 계급적 제한성, 숭미사대주의 등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종결되고, ‘노동계급의 선진사상에 의해 지도되는 단계’에 접어들어 여러 대중운동들이 이를 이끌 ‘당’을 필요했다고 서술한다.

즉, 3.1운동이 전 민족적인 독립 열망을 보여준 대중 운동이었다는 지점에서 동의하지만 3.1 운동이 민주공화정을 수립하고자 하는 열

망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의 등 남한에서 통상적으로 평가하는 내용과 다르게 3.1운동은 실패했으며 이는 ‘부르조아 민족운동’의 종결이며, 사회주의 혁명적 독립운동의 필요성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평가한다.<sup>9)</sup>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3.1 운동 이후 공산주의자들의 위주로 독립운동사를 서술하면서, 계급투쟁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독립운동 연합전선 구축의 사례들(예를 들어 신간회의 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독립동맹의 연계 등)은 빠져 있다. 이미 공산주의자들의 독립운동이 시작되면서 독립운동사는 ‘인민대중’의 독립 열망과 운동을 이끄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고 이른바 ‘부르조아 민족주의자’들은 독립의 협력대상이 아니라 이미 낡은 가치를 고수하는 구시대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이후 전개되는 내용이 일제 강점기 공산주의자와 공산당의 활동임을 볼 때 역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주의로의 이행 과정을 법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0)</sup>

이처럼 각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갈등과 투쟁에 대한 내용의 비중이 매우 큰 데, ‘고급중학교 역사1 교수지침서’에서도 교육목표에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력사에 대한 시기적 고찰을 통해 온갖 지배와 연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해 역사는 전진하고 발전하며 왔다는 것을 인식시키고…(후략)”<sup>11)</sup>*

---

9) 저작미상, 『중학교 6학년 조선력사』, 2008, p.13~18, p.29~30.

10) 위의 책, p.33~38.

11) 오영철 외 5인, 『고급중학교 역사1 교수지침서』, 교육도서출판사, 2014.

즉, 역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고, 인민대중의 투쟁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주요한 사건들을 설명하는 주어가 ‘인민 대중’이고, 유달리 농민 봉기나 반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고 단원 상의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몇몇 중요 사건들의 경우에는 남한에서 단순히 ‘반란’이나 ‘봉기’ 차원에서 서술하는 것도 ‘농민 전쟁’으로 규정하거나 혹은 단원 하나를 별도로 설정해서 다루고 있다. 근현대사에서 국내외에서 진행된 여러 독립 운동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리며 그 원인을 ‘인민대중’과 동떨어졌다는 평가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문화사 서술에서도 ‘인민’의 창조적 능력으로 문화를 창달하였다는 서술이 자주 보인다. 고려청자도, 금속활자도, 그리고 한글까지도 우리 인민들의 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과 투쟁의 산물이라고 본 것이다. ‘인민대중’의 역할에 대해 유달리 강조하고 조금 사회주의 특유의 갈등과 투쟁에 대한 강조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sup>12)</sup>

그런데, 여기에 우상화의 요소가 끼어들게 된다. 물론 김일성 교시로 단원이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근현대사로 갈수록 이 ‘인민 대중’들의 투쟁을 이끌 ‘어떤 사람’ 곧 수령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가 사건 평가 마다 꼭 들어간다. 또한 중요하다 싶은 사건들(제너럴 셔먼호 사건, 3.1 운동 등)에는 보통 김일성과 그의 조상, 일가들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그들이 역사적 사실의 중심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종류의 우상화는 역사적 사건의 평가와 해석에서도 드러나는데, 을사조약부터 광주학생항일운동까지 다루는

---

p.3.

12) 김광수 외 4인, 앞의 책, p.84~93.

2008년판(학제 및 교육과정 개편 이전) 고등중학교 6학년(현 고급 중학교 3학년) 역사교과서에서 항일을 위한 수많은 인민대중들의 투쟁은 ‘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 탁월한 지도자 혹은 수령의 영도’가 부족했다는 서술이 반드시 들어간다. 그래서 ‘광주학생항일운동’으로 마무리 되는 해당 교과서 정치사 단원의 마지막 문장은 ‘위대한 수령의 출현을 고대하게 된 것이다’로 마무리가 된다. 겉으로는 인민대중의 주체성과 그들의 투쟁을 강조하지만 그것을 이끌 ‘수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김일성 일가의 집권을 정당화 하는 모습. 바로 ‘주체사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역사교육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우상화를 초점으로 둔 서술방식과 근현대사 내용 대부분을 ‘혁명 역사’ 영역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과정의 형태는 북한의 역사교육이 정치사상을 위한 도구라는 명확한 한계점을 보여준다.<sup>13)</sup>

### ⑤ 교과서 서술상의 특징 3 : 북한 지역 중심의 서술

남한 학생들에게 ‘평양’을 비롯해 ‘개성’, ‘해주’,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등과 같은 도시들의 이름은 그다지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가본 적도 없거니와 갈 수도 없는 이런 도시들은 물리적 거리 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당연히 남한 학생들에게는 북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해하거나 와 닿는 것들이 적을 것이고,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북한 학생들도 남한이라는 공간에 생소함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

---

13) 저작미상, 앞의 책, p.13, 24, 30~38.

일 것이다. 때문에 교과서 속에서 등장하는 많은 사건들이나 문화유적들은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경향을 보인다. 고구려나 발해 역사의 비중이 높은 것도 일정부분 유적과 유물을 훨씬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인도 있을 것이며, 북한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나 농민봉기, 여러 역사적 사건들도 지리적으로 훨씬 더 이해하기 수월할 것이다. 남한과 같은 사건을 배워도 그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보통 북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술이 되고 있다.<sup>14)</sup>

문화사에서는 그런 경향을 확실히 보이는데, 예를 들어 고려시대 건축을 설명할 때 남한 교과서에서는 현재 남한 영역 경상북도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과 ‘부석사 무량수전’을 예시로 들지만, 북한 교과서에서는 ‘묘향산 보현사’를 예시로 들어 고려 건축을 설명한다. 또한 고려 불교 문화의 정수인 대장경을 설명할 때도 ‘대장경 경판’과 그것을 소장한 ‘해인사와 장경각’ 자체가 고려의 문화유산임을 강조하는 남한 교과서와 달리, 북한은 해인사와 경판에 대한 이야기 없이 북한 내에서 보관중인 ‘대장경’ 자체에 초점을 두고, 보관에 대한 설명도 그들이 자체적으로 지은 인쇄본 대장경 보관소를 김일성의 지시로 건설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지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조금씩 남과 북이 나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sup>15)</sup>

#### ⑥ 교과서 서술상의 특징 4 : 달리 보는 정권 정통성의 연원

14) 보통 서술 면에서 북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비중이 높거나, 남한보다 북한의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먼저 서술한다. 한영철 외 4인, 앞의 책, p.58~60 ; 저작미상, 앞의 책, p.26~28, p.38~39.

15) 김광수 외 4인, 앞의 책, p.88~90, p.101~105.

북한의 역사교과서이니 북한 정권에 정통성을 두고 역사를 서술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이다. 앞서 ⑤에서 보다시피 지역적, 사건적 측면에서 북한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평양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도 넓게 보면 한반도 정권의 정통성을 북한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그들의 직접적인 정권 정통성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까? 먼저 남한에서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설명하는 방식을 짚고, 북한의 서술을 정리해보자.

대한민국 정부와 남한 역사교과서에서 정부 정통성의 설명은 ‘국제적 승인’과 이에서 기인하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논리에 기초를 둔다. 즉, UN 총회의 결정으로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이뤄지도록 한 5.10 총선거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선출 및 소집된 제헌 의회를 거쳐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과정을 서술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 제 195호를 통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국제 사회 전체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sup>16)</sup>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하였으며 또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는 한국의 동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자 임시위원단에 의해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과, 또한 동 정부가 한국내의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sup>17)</sup>*

16) 한철호 외 7인, 『고등학교 한국사』, 2013, p.313.

17) 『한국과 유엔』, 국가기록원, 접속일자 2019. 7.23.,

또한 5.10 총선거도 비록 남한에서만 이뤄지긴 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과 소련의 유엔한국감시위원단 입경 거부로 실시되지 못한 것을 명시하여 단독정부의 수립의 최종 책임을 북한 정권에 돌린다.

이 결의는 여기서 말하는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의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의 논의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분분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1947년 10월 14일 유엔 총회의 뜻에 따라 남북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5.10총선거가 기획, 추진되었으니, 정리하자면, 남한의 정부 정통성의 가장 큰 근거는 ‘국제 사회의 승인’과 뗄 수 없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북한은 ‘국제적 승인’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건보다는 국가 내적 논리에 충실하여 정권 정통성을 변호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국제적 승인은 부차적인 문제고 “인민 전체 의사가 반영된 헌법에 기초된 국가”가 ‘합법적 국가’라는 점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에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야말로 ‘남북한 전체를 아우르는 총선거’로 수립되었고 이에 진정한 한반도의 ‘합법적 국가’라는 것을 강조한다.<sup>18)</sup>

특히 남한에서 ‘소련과 북한의 거부로 남한만의 5.10총선거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서술이 실린 데에 비해, 비록 북한 지역만을 통치하는 제한적 정권임에도 그들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http://theme.archives.go.kr/next/unKorea/approvalKorea.do>

18) 최동철 외 3인, 『고급중학교1학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2013, p.151~155.

정부는 전 조선을 아우르는 남북통일정부라고 김일성의 교시를 들면서까지 강조 하고 있다.<sup>19)</sup> 실제로 북한 정권은 남북한 총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고주권의 대의제 기구인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위해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이중으로 치러지는 간선제 방식의 지하 선거를 실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그들 정권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정권임을 주장했다. 이렇게 남북 전체를 아우르는 대의원들이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 모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북한 정권이야말로 북과 남의 인민 전체 의사를 대표한다고 주장하여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한다.<sup>20)</sup>

#### 4. 북한 역사교육의 교수방법과 평가

##### 1) 북한 역사 수업의 장면은 어떨까?

북한 역사교육의 교수방법을 수업을 직접 볼 수 없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쉽게도 찾기가 어렵다. 다만 남한에서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해설서’가 각 과목별로 존재하듯이, 북한에서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교육강령’ 과 ‘교수지침’ 각 과목별로 존재한다. 과목별 ‘교수지침서’를 살펴보면, 교육목표, 방법, 평가에 대한 해설과 남한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 시에 보는 ‘교사용 지도서’에서 볼 수 있는 학습지도안들이 단원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어 표준적인 형태의 수업을 국가가 어떻게 제시하는 지를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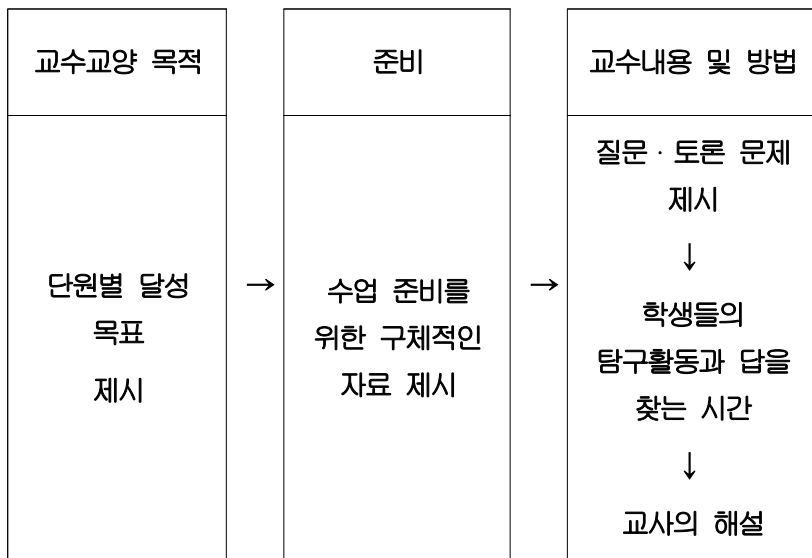
---

19) 위의 책, p.151.

20) 위의 책, p.153~155.

역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을 기르는 것을 토대로 한다. 교육학자 블룸(B.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과 비슷하게 북한에서도 크게 품성·태도/ 지식 / 능력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교육 목표 달성 영역을 설정한다.

이어 각 단원별로 지도안이 등장하는 데, 수업의 절차와 수업 중 교사가 짚어줘야 할 내용, 해설해줄 만한 자료, 교수 관련 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수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틀로 교수학습 과정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교수교양 목적에서 각 단원별로 달성해야 할 학습 목표를 제시 한 뒤, 준비란에는 수업에 읽을 만한 참고문헌들이 먼저 제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사교육이 정치사상을 위한 도구 과목이 되

고, 정권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게 ‘필독서’로는 ‘김일성 선집’, ‘김정일 선집’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수업에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전문서적들은 ‘참고서적’이라는 이름으로 제시 되어 있는데 보통 국가 차원이나 김일성종합대학 등에서 발행한 서적들인 점이 특징이다.

교수내용 및 방법에서는 남한의 ‘교사용 지도서’에서 개별단원 별로 제시되는 수업절차와 지도안이 적혀 있다. 표 형태로 수업 활동 계획, 내용 배치, 시간 배분 등이 빼곡히 들어간 남한의 ‘수업지도안’과 다르게 북한에서는 줄글 형태로 수업의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하고, 중간에 제시해줄만한 읽기 자료나 교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전공분야 지식이 담겨 있다. 수업 중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부분을 짚어줘야 하는지를 작은 주를 담아서 제시하고 있어서 교과내용을 수업으로 구체화하는 데에는 북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수업은 우리의 선입견과 다르게 무조건 세뇌라기보다는 의외로 질문을 많이 활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원하는 해석의 틀과 답이 정해져 있는 것 때문에 온전한 배움 중심 수업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북한도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이라 하여 학생들이 직접 교사의 질문이나 탐구해야할 그 날의 과제에 직접 교재를 뒤지고 토의를 하여 답을 찾은 뒤 교사가 비로소 설명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우리보다 교과서의 권위가 높고, ‘교과서 내용의 원리적 이해’를 추구하여, 모든 학습활동과 교과서 구성요소가 교과서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쏟도록 하지만, ‘학생들이 읽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사고력을 개발하고,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으며 어떤 경험과 교훈을 얻었는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을 교수방법의 목표로 두고 있다.<sup>21)</sup>

물론 여기서 제시한 교수지침서 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사실상 정답이 정해져있고, 정권의 입맛대로 일률적인 해석을 강요하는 것이 북한 역사교육의 현주소이다. 결국 방법이 좋아도 내용 자체가 정권이 원하는 정해진 결론을 도출하는 형식의 수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력 증진, 다양한 해석을 목표로 하는 역사 수업을 북한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역으로 생각했을 때, 교수지침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업 내용을 지시하고, 김일성 일가 문헌자료나 국가 편찬 역사를 필수 및 참고자료를 제시한다면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일괄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정권의 교육 간섭 정도가 우리보다 훨씬 극심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2013년에 대대적인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편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학습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을 교과서 내용에 신설하고, 북한 이탈주민 중에서도 교사의 수업 방식에 따라 역사 내용을 기억하고 흥미를 느끼는 바가 조금씩 다른 만큼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북한 역사 교사들의 수업 연구가 교육의 질과 수업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2) 수업 후 평가 과정

수업을 했으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얼마나 알아봤는지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역사 과목의 성격이 정치사상에 가까운 상황

---

21) 차영남, 강국모, 『초급중학교 조선력사1 교수지침서』, 교육도서출판사, 2013. p.8 ~ 9, 20 ~ 23 ; 오영철 외 5인, 『고급중학교 력사1 교수지침서』, 교육도서출판사, 2014. p.10 ~ 15.

이니 북한에서도 배운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절차이다. 북한의 초급중학교 ‘조선력사1 교수지침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 원칙을 제시한다.

- ① 교수의 양적, 질적 성취도와 태도, 학습방법의 긍정적 부정적 요소들을 모두 평가한다.
- ② 학습자의 개성적 차이에 주의를 돌리고 학생들의 작은 성과도 크게 평가하여 자신감을 심어준다.
- ③ 학생 자체가 평가 대상 및 평가자 입장에서 설 수 있도록 하며 교사가 독단적으로 주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한다.<sup>22)</sup>

이와 같은 평가 원칙은 남한에서도 일선 현장에서 지켜지는 원칙들이다. 교사들이 공정하면서 정확한 평가를 이뤄야한다는 생각은 남북한 교사들이 모두 공감하는 교육적 방향으로 생각한다. 특히, 역사 과목 평가를 통해서 특정한 사실을 암기했다는 것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평가를 지향하고, 아이들의 차이를 주목하는 것은 학생의 개별적인 성장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학생’의 위치를 평가 대상이면서 ‘평가자의 입장’서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교사는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를 계획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가 독단적이고 주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평가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교수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도구는 학

---

22) 차영남, 강국모, 앞의 책, p.8 ~ 9.

생의 개성적 차이와 수업 활동과 연관되는 평가방법들이 점점 다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지침서에서 제시하는 평가 도구는 다음과 같다.

- ① 필답 : 전통적인 문제 풀이 지필평가 시험들이다.
- ② 구답 : 구술시험 평가 방법이다.
- ③ 느낀 점 말하기 :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 특히 사진영상자료 활용 수업이나, 박물관 및 유적 탐방 수업과 연계해 학생들이 직접 느낀 점을 발표함으로써 시대와 역사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④ 자료집 만들기 : 모둠 활동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다양한 형태로 내용 정리 및 시각화를 시켜 자료집을 만드는 평가 방법이다.
- ⑤ 실천 활동 : 위에서 제시한 활동 이외에 지도 표기, 표 작성, 토론 등 다양한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다.<sup>23)</sup>

그런데 이렇게 다변화된 평가를 지향하는 북한도 입시로 들어가면 ‘필답’형 평가가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역사 과목은 ‘주관식’ 지필평가로 이뤄지는데, 이러다보니 학생들은 배운 내용들을 일단 모두 암기하는 데에 집중한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 등 북한 유수의 명문대학들이 치루는 것은 과거 남한에서 치르던 본고사 시험과 유사한데, 필수 과목으로 ‘혁명 역사’가 들어 있다. 여기서 제시되는 문제 역시 전부 주관식 논술형 문항인데 한 줄 문제로 제시

---

23) 위의 책, p.10 ~ 11.

되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라 사실상 묻는 내용에 대한 교과서 속 지식을 전부 외워서 답을 쓰는 암기형 주관식 문제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역사 교과가 암기과목으로 여겨지는 현 주소를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 5. 남과 북, 역사교육 안에서 비슷한 모습들

북한의 역사교육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질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서로를 나누는 이질적인 모습의 간극이 너무도 크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부여하는 의미와 해석의 차이도 크지만, 부정할 수 없는 노골적인 우상화와 과도하다 싶은 민족주의, 정치사상과 정권의 정당성을 주입시키기 위해 역사교육을 도구화하는 모습은 민주화를 성취하고 정권의 입김에 따른 역사교육을 막고자 했던 남한 역사교육계의 모습과 확연히 대비된다. 그렇지만 남한 또한 북한이 걷고 있는 ‘정권 정당화’를 위한 역사교육의 그림자를 그대로 가져왔던 시절이 있었고 이른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가 불과 몇 년 전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북한에서 보이는 역사교육의 문제점에서 남한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북한 역사교육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는 우리 남한도 함께 극복해야 하는 과제라는 셈이다.

비슷한 길을 걷던 남한 역사교육이 변화하였듯이, 북한 역사교육도 변화의 불씨가 존재한다. 특히 교육과정 구성과 교과서 구성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먼저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목표와 범위와 수준, 그리고 ‘도달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남한의 각 교과별

교육과정 각론에 제시된 체제와 대응하여 보면 비슷한데, 특히 ‘도달기준’은 남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김정은 집권 후 2013년 이후 개정된 교과서도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본문의 내용 요소와 서술을 전체적으로 축소하였을 뿐 아니라, 남한 교과서에서 각 과목마다 꼭 들어가는 ‘탐구문제’, ‘배운 내용 정리’, ‘생각하기(초급중학교 교과서)/질문(고급중학교 교과서)’, 원전 사료 발췌문 등 교과서 서술 외에 필요한 탐구활동 자료들까지 구성하여 컬러 인쇄를 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불과 5년 전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본문 서술 외의 ‘탐구활동’이 등장하고, ‘교수지침서’에서 ‘결론적인 서술을 피하고, 학생들의 사고력을 높이고’, ‘연대암기로 인한 부담을 줄인다’ 등은 적어도 교과서에 대한 기본 구성 방향과 향후 역사교육의 교수방법에서 만큼은 남한의 방향을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 사이에서 함께 일어나는 소소한 변화들이 훗날 큰 변화의 흐름을 형성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sup>24)</sup>

## 6. 나가며 : 남과 북을 아우르는 역사교육을 위한 노력들

최근 들어 앞으로의 역사교육이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 민주시민을 위한 역사교육에 관한 연구들 중에는 남북통일을 위해 우리 역사교육이 기여해야 할 부분들, 우리 역사교육에서 꼭 해줘야 할 것들을 주제로 삼는 연구들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남한에서 가르치는 남

---

24) 오영철 외 5인, 앞의 책, p.12~15.

북통일 운동의 역사, 북한 역사교육의 내용 구성, 북한 역사교육 자체에 대한 연구, 남북 간의 상이하고 이질적인 역사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 향후 남북통일을 상정하여 양 측의 역사인식 차이를 좁히고, 통일 이후의 역사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sup>25)</sup>

남북 사이의 이질적인 역사교육으로 만들어진 간극을 줄이는 데에는 물론 남한에서의 연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남북의 역사교육이 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공통된 역사인식과 다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파악하고, 양 측이 가지고 있는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전반적인 부분을 놓고 소통하고 때로는 치열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드는 역사교육, 그것은 이제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

25) 민주시민교육으로써의 역사교육에 대한 여러 논쟁과 담론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논하지는 않겠다. 다만 우리나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비추어서, 역사교육이 전체 학교교육에서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차원에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와 전반적인 참조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김한중, 『민주시민과 사회를 위한 역사교육』,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김한중 외 8인, 『시민교육을 위한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천』, 책과함께, 2019.

## 제2부

### 남북한 사람들의 생각, 외국인의 시각

## 남북한 사회통합을 바라보는 탈북민의 시각

송현진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현재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부정적 고정관념과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편견’은 양쪽 주민 모두 서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단 이후 남북한 정부는 체제 경쟁 과정에서 서로를 적대자로 규정하여 부정적 사회화를 진행해 왔다. 남북한 주민은 교육을 통해 ‘편견’을 학습하였다. 특히 교육과 언론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적대감과 불신감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가진 ‘편견’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통일 이후 상호접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갈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한 주민들은 통일 이전부터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절실하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3만 3천 명의 탈북민은 남북한 사회 통합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본 장에서는 향후 활발한 남북교류를 앞두고 먼저 한국사회에 살면서 경험한 남한주민에 대한 탈북민의 인식과 사회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에서 10년 이상 생활한 탈북민 5명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탈북민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탈북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202명 탈북민에게 설문지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탈북민은 남성 2명, 여성 3명이었으며, 연령은 30대~60대로 2000년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10년 이상 한국사회에 거주한 자들이었다. 설문지에 참여한 탈북민은 남성 36명(17.8%)과 여성 166명(82.2%) 이었으며, 주로 20대~50대로 2000년 이후 입국하여 한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 1. 북한에서 생각했던 남한사람에 대한 인식은?

탈북민들은 남한에 오기 전 북한에서 남한사람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먼저 외부정보가 차단된 폐쇄적 환경의 북한에서 살았던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받은 교육의 영향으로 남한사람을 이해하고 있었다. 미국의 식민지에 사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자본주의 나라의 부정적 측면인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이기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미국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남한사람으로 생각하였다. 반면 몇몇 탈북민은 남한사람을 문명화된 나라에 사는 이상적인 사람이나 부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북한에서 살 때 그들은 남한사람도 북한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대답이었다. 북한당국이 획일화된 교육과

언론매체를 통해 남한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사람은 남한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으로 남북한 주민이 다양하게 교류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 3-1] 북한에서 생각했던 남한사람에 대한 인식

| 설문지 응답 내용                                                                         | 빈도   |
|-----------------------------------------------------------------------------------|------|
| 남한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 91   |
|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 58   |
| 돈만 아는 황금만능주의 사람이다                                                                 | 57   |
|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 32   |
| 이중인격을 가진 이면적인 사람이다                                                                | 32   |
| 문명화된 나라에 사는 사람, 이상적인 사람, 그냥 부자들, 미국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 북한에서 사실 남한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음 | 각 1씩 |

## ■ 남한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탈북민 인터뷰 결과 ‘남한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 질문에 대한 설문지에서도 가장 많은 탈북민(33%)이 응답하였다. 북한당국의 부정적 교육에도 불구하고 북한사람은 남한사람을 그냥 자신들과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 살 때 남한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남한의 발전상도 알았죠.”*

*(김00, 51세, 남성, 대졸, 회사원)*

## ■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북한은 한국사회와 남한주민에 대해 미국 식민지에 사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민들은(21%) 교육받은 대로 한국사회를 거지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는 북한에서는 남한 생각을 크게 안 하고 살았어요. 남한은  
거지가 많은 나라, 헐벗고 굶주린 남한동포들, 이런 걸 교과서에  
서 배워줬거든요(가르쳐줬거든요). 남한에 대한 우호적, 동한의  
사회주의에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죠. 거기서 알려주는 사상  
교양대로 공부를 위한 공부만 하고 남한에 대한 어떤 의식도 없  
었어요.”*

*(이00, 50세, 여성, 대졸, 회사원)*

## ■ 돈만 아는 황금만능주의 사람이다

북한에서 주민들은 명분을 중시하고 사회주의 도덕적 가치와 집단 의식, 책임감, 의무감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성장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교육해왔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북한사람은 남한사람에 대해 돈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평등한 사회인 사회주의와 달리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은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로, 그곳에 사는 남한사람은 사기꾼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북한에서 남한사람이라는 건 미디어나 교육하는 대로밖에 못 알고 있었어요. 남조선이라는 나라는 미제 식민지고 자본주의 황금 만능주의 나라이며 돈을 위해선 존속살인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요. 남한은 빈부차도 엄청 심해서 부익부 빈익빈인 나라고 남한사람은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김00, 51세, 남성, 대졸, 회사원)*

## ■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집단주의 공동체 문화를 강조하는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를 개인만 중시하는 이기적인 사회로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탈북민은 북한에서 남한사람에 대해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나 집단 전체의 인간관계를 위한 노력이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생각했었다고 한다.

“나는 북에서 남한의 발전상도 알았고 옆집에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세상이란 걸 알고 왔습니다. 남한사람은 이기적이고 남한테 관심도 없고 한마디로 매정한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김00, 51세, 남성, 대졸, 회사원)

## ■ 이중인격을 가진 이면적인 사람이다

남한사람은 탈북민의 의사소통 방식을 지나치게 직선적이고,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으며, 자존심이 강하여 타협할 줄 모른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탈북민은 북한사람의 성격과 의사소통 방식의 특성에 대해 순수하고 솔직하여 직설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남북한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해 탈북민은 남한사람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겉과 속이 달라 이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북에서 대표선수로 7~8년 활동했는데 한국선수랑은 적대관계였죠. 운동하다 보니 외국사람과 애길 하다 한국사람 애길 들으면 남한선수들이 압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회적인 걸 봤을 때 대부분 사기꾼들이 많구나,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싫어도 좋아한다 그러고 이중인격을 가진 것 같다. 사기성이 있구나. 마음에 없는 표현을 하니까 이면적이라고 생각했죠.”

(박00, 39세, 남성, 박사수로, 연구원)

## 2. 탈북민들은 한국사회에 살면서 남한사람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입국 초기에 느낀 남한사람의 이미지는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입국 초기 탈북민이 만나는 남한사람은 주로 국정원이나 하나원, 하나센터 직원, 취업현장에서 만난 사람,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에 따라 알미운 사람, 자신들을 무시하고 수혜대상으로만 여기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등 부정적으로 인식했다고 한다. 반면 상냥한 말투를 지닌 사람 등 긍정적 인식도 있었으며, 너무 친절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이용하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지 오해도 했다고 한다. 입국 초기, 남한을 동포의 나라로 인식했던 탈북민들은 남한사람이 자신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남한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았으며, 다른 체제에서 살아와 서로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여 오해도 했다고 한다.

### ■ 입국 초기 느낀 남한사람의 다양한 이미지

*“중국을 거쳐 몽골로 넘어왔는데 처음으로 몽골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났어요. 나를 빨리 한국으로 보내주지 않아서 반감을 느꼈고 알미웠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만난 국정원 직원은 상냥한 말투가 좋았어요.” (안00, 49세, 여성, 대학원 수료, 복지사)*

“오자마자 직업소개소 소개로 식당면접을 봤는데 탈락했어요. 사람 생김새를 먼저 보고 판단하고 억양 센 북한사람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알미웠죠.”

(이00, 50세, 여성, 대졸, 회사원)

“아르바이트로 방청객 박수부대를 했는데 제가 늦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지적해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알미웠는데 대신 약속을 잘 지켜야 함을 배웠어요.”

(안00, 49세, 여성, 대학원 수료, 복지사)

“처음에 장충동 가서 족발 먹고 싶은데 내가 데려가 줄게 이런 사람 많았어요. 뭘 주거나 해준다 하는 사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옮겨지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족발 먹자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실전에 옮기는 사람 별로 없구나 하고 느꼈죠.”

(박00, 39세, 남성, 박사수료, 연구원)

“공무원들의 태도가 밖에서 보기엔 진짜 그런데, 뒤에서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말을 하는 게 들려요. 그때부터 내가 갖고 있던 이미지가 막 바뀌더라고요.”

(이00, 50세, 여성, 대졸, 회사원)

“입국 초기에는 남한사람이 우리를 따뜻이 대해 줄 줄 알았어요. 너무 단순한 거지.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연민으로 바라봤고 처

음에는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지내보면 탈북민에게 상처받는 거죠. 우리가 친절하지도 않고 겉으로 표현이 그러니까(거치니까) 남한사람이 우리랑 슬그머니 멀어지고.”

(이00, 50세, 여성, 대졸, 회사원)

“교회에서도 안 좋게 말하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포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친절하니까 오해한 거예요. 우리는 북한에서 김부자 신(존재) 외에는 개인과 개인이 친절한 거는 우리에게 없던 일이거든요. 돌아보면 감사해서 눈물 나요. 여기서 15년 공부했는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했어요.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오해가 있었는데 그걸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최00, 64세, 여성, 대졸, 회사원)

남한사람에 대한 입국 초기의 다양한 생각은 10년 이상 남한사람들과 살면서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 고착화한 측면도 있었다. 한편 많은 부분은 남한사람을 이해하는 시각으로, 중립적인 관점으로 변했다고 한다. 이처럼 탈북민과 남한사람이 서로 함께 교류하며 어울려 살다 보면 상대방의 가치관과 문화, 생활방식, 의사소통 방식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한사람, 북한사람이라는 차이가 아니라 인간이 지닌 보편적 특성으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점차 인식해 나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살면서 탈북민으로서 제도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사회의 배려였음을 깨달아 나가고 있었다고 한다.

## ■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사람들

“남한사람에 대한 인식은 더 나빠졌어요. 모르는 사람 상관 안 해요. 근데 먹을 게 하나면 질투와 배척의 대상이 되고, 밥통 갖고는 양보가 없어요. 여기는 약육강식이 존재해요. 돈 벌기 위해서는 너무 이기적이고 나를 위해선 부모형제도 모르고 그런 거 같아요.”

(김00, 51세, 남성, 대졸, 회사원)

“북한에서 하는 인사는 진심의 인사입니다. 남한은 진심이 하나도 없어요. 위선이지.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로 웃지만, 이중적이라고 생각해요. 남한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박00, 39세, 남성, 박사수료, 연구원)

“밝은 생각, 밝은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도 없는 것을 표현해주는 것 같아요. 북한사람은 입에 발린 소리 전혀 안 하고 무뚝뚝하죠. 북한사람은 대체로 자기가 싫어하는 거에 대해 표현이 확실히 나요.”

(안00, 49세, 여성, 대학원 수료, 복지사)

■ 살다 보니 남한사람이 이해가 되고 탈북자라 편해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런 행동들이 이해되고, 북한과 남한 사이에 제도가 다른 데서 살아와서 남한사람이 이해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해가 돼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최00, 64세, 여성, 대졸, 회사원)

“적응하기 전까지는 조금 저 사람 기분 나쁘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지금은 적응이 다 되어서 남들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남한에 적응이 다 되고 난 입장에서 내 생각은 내가 기분이 나쁘고 상처받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회사에서도 내 업무만 하면 편하게 충돌할 일도 없고 집안에서도 다 편하고 밖에 나가서도 크게 충돌할 일 없고 그래요. 지금 아르바이트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탈북자라고 잘 챙겨줘요. 적응하고 나서는 편안한 것 같아요. 탈북자여서 편한 것 같아요.”

(이00, 50세, 여성, 대졸, 회사원)

“초기에는 내가 세상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날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화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이해가 돼요. 탈북자로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동경을 해주는 것이 남한사람에게는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어요. 남한에는 탈북자 우대 국가정책이 있잖아요. 탈북자라서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탈북자여서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안00, 49세, 여성, 대학원 수료, 복지사)

## ■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은 대학에서 만난 교수님들과 교회 사람들이예요. 한 교수님은 지금까지 내 옷과 아이들 간식을 챙겨줘서 고마워요. 나에게 정신적 지주 같은 사람들이예요. 나쁜 사람은 먼저 밥 먹자고 초대해놓고 밥값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안00, 49세, 여성, 대학원 수료, 복지사)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식, 생활패턴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한국 왔을 때가 더 좋았어요. 사람들이 따뜻했어요. 지금은 한번 보고 안 볼 인연, 일회성의 가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사회가 빨리빨리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의 따뜻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엔 친구들 만나면 사는 얘기 웃으면서 하는데 요새는 사는 얘길 많이 하면 다 우울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잘 안 해요.”

(박00, 39세, 남성, 박사수료, 연구원)

## ■ 남과 북 사람들의 언어적 표현 차이가 커서 노력이 필요해요

“남한과 북한은 언어적 표현력의 차이가 커요. 남북한은 한민족이지만 다른 언어를 가진 종족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남한사람

이 얘기하는 걸 북한사람이 들었을 때 가식적으로 들려요. 물을 줬을 때도 “너무 고마워” 그래요. 그냥 고마운 수준인데 ‘너무’가 들어가서 좀 불편해요.”

(박00, 39세, 남성, 박사수료, 연구원)

“남한사람이 밥 먹을래, 점심 먹을래? 그럼 빵이라도 사줄까? 이러면 북한사람이 표현하는 건 ‘일 없다’예요. ‘일 없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무 일 없다, 괜찮다는 표현인데요. 약간 무뚝뚝해 보이는 표현이지요.”

(안00, 49세, 여성, 대학원 수료, 복지사)

## ■ 서로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남북한 사람이 만났을 때 뭘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럼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봐요. 문화, 표현방법을 알고 대화를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야 하는 거지요. 소개팅하듯이 처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걸 밝히고 하면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듯해요.”

(최00, 64세, 여성, 대졸, 회사원)

“우리는 남한은 잘사는 나라라고 접근해서 남한사람은 월등하다 접근하는데, 딱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는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힘들었는데요. 일을 같이하면 무시하고 지금에 와서 이해를

못 한 부분이 많긴 했지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수다에 끼워도 안주고 저들끼리 뭉쳐있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비집고 들어갈 수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지금에 와서 살아 보니까 내가 옛날에 몰라서 그랬구나. 그냥 들어야 되는 입장이 지금에야 이해가 됐어요.”

(이00, 50세, 여성, 대졸, 회사원)

### 3. 한국에 살면서 느낀 남한사람들의 좋은 점은?

탈북민들은 10년 이상 한국에 살면서 남한사람에게 좋은 점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먼저 자본주의 체제, 경쟁사회에 사는 남한사람은 매우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남한에서 일하는 대로 하면 북한에서는 “노력영웅이 된다”는 탈북민의 말은 남한 직장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그런 노동강도를 견디며 열심히 일하는 남한사람의 태도가 탈북민에게는 매우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남과 북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남한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존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냥하고 친절한 남한사람의 말투와 태도가 좋아졌다고 한다.

[표 3-2] 한국에 살면서 느낀 남한사람들의 좋은 점 및 따라 배우고 싶은 점

| 설문지 응답 내용             | 빈도  |
|-----------------------|-----|
| 말투가 부드럽다              | 120 |
|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 110 |
| 상냥하고 친절하 사람이다         | 77  |
| 베풀고 봉사하는 사람이다         | 63  |
| 외모와 외향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 59  |
| 무게가 있고 점잖은 사람이다       | 7   |

#### ■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남한사람은 상당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공동체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열심히 해도 내 것이 안 되는 데. 여기 자본주의는 내 것이 되는 사회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이루어지니까 본인이 주인이 되는 거지요.”

(이00, 50세, 여성, 대졸, 회사원)

#### ■ 상냥하고 친절하 사람이다

“사람의 근본은 선하고 가슴 뜨거운 것들이 있다고 봐요. 남한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명절에 음식도 갖다 주고 이런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 믿고 살아가요. 10년 동안 유대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밤 12시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남한 친구들은 차별이 없어요. 멀리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왕래해요.”

(김00, 51세, 남성, 대졸, 회사원)

“인사성이 해맑은 것이 좋아요. 대화를 함에 있어서 지역마다 특성이 있긴 하지만, 경상도 전라도 이런 걸 떠나서 보편적으로 길을 물어보거나 몰라서 물어보면 상냥하게 대답해주거나 미소를 띠고 얘기해준다거나.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게 있어요.”

(안00, 49세, 여성, 대학원 수료, 복지사)

“서비스업종 같은 경우도 직업적인 것도 있겠지만 상냥하고 해맑은 것이 좋아요. 직업정신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요. 북한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 나는 건 그런 것이고. 남한사람은 친절하고 상냥해요. 북한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남한사람들은 포용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향 대화로 소통이 된다고 봐요.”

(박00, 39세, 남성, 박사수료, 연구원)

## ■ 외모와 외향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남한사람들은 또 외모적인 걸 엄청 신경 쓴다고 봐요. 사람의 가치는 원래 머리카락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요. 북한사람은 생각, 표현력, 능력에 가치를 둔다면 남한사람들은 외향적인

거에 치우친다고 생각해요. TV에서 연예인 보더라도 연기능력 이런 거보다는 이쁘더라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남한 사람들은 사랑을 1순위, 북한은 1순위를 믿음으로 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요. 보이는 것에 남한사람은 가치를 잘 두는 것 같아요.”

(이/00, 50세, 여성, 대졸, 회사원)

#### 4. 따라 배우고 싶은 남한사람의 말과 행동은?

탈북민들은 남한사람이 지닌 좋은 태도와 생활방식 중에서 ‘부드럽고 진중한 말투’를 가장 많이 따라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언제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다름을 존중해주며 어려울 때 도와주는 태도를 본받고 싶어했다. 그리고 남한사람의 경청해주고 수용해주는 태도와 베풀고 봉사하는 모습을 따라 배우고 싶다고 했다.

##### ■ 부드럽고 진중한 말투

“남한사람은 부드럽고 진중하세요. 북한사람은 강하고 언어폭력 이에요. 북한사람은 생활총화 상호비판이 언어에 깔려 있어서 막 말해요. 그런데 남한분들은 친절해요. 진중하다는 것의 의미는 깊이가 있다,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북한은 깊이가 없고 가벼워요. 다혈질적이죠. 사람에 따라선 다르겠으나 화끈하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북한사람은 비판의 문화에서 살아서 이야기 문화가 자기가 숨기는 게 없이 다해야 해요. 그러니 한국사람들 보면 이중인격이고 저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냐 이러는데요. 북한사람은 양파 까듯이 다 알아요. 북한 제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00, 50세, 여성, 대졸, 회사원)

■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다름을 존중을 해주며 어려울 때 도와주는 태도

“남한사람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대학교수님이세요.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해주세요. 또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안00, 49세, 여성, 대학원 수료, 복지사)

“저는 북한에서도 여기 와서도 인복이 많아요. 여기 와서도 굿피플 학장님이 저를 학생으로 발견해주고 좋은 점 발견해서 세워줬고 영적 멘토로 모퉁이 모퉁이마다 그런 분들이 여럿 있어요. 사심 없이 진실하게 대해 주고 신앙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오래오래 참고 들어주시고, 정기적으로 밥 먹고 중보기도 해주고, 있는 그대로 봐주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어려움 있을 때 나서주는 사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구체적으로 도움 주고 그래요.”

(최00, 64세, 여성, 대졸, 회사원)

## ■ 베풀고 봉사하는 모습

“남한에는 재능기부, 봉사 이런 게 있는데요. 주변을 보니까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가족처럼 소외된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게 보여요.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런 따뜻한 마음, 베풀 이런 거는 배우고 싶구나. 북한에는 복지체계는 잘 되어있지만 실행능력이 떨어져서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남한은 개인적으로 전문가들이 봉사하잖아요. 저도 어렵게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이지만 나보다 그들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풀고 봉사하는 그런 시스템은 다른 사람한테 영감을 받아서 요런 건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00, 49세, 여성, 대학원 수료, 복지사)

“봉사하는 남한사람은 정신건강이 맑고 뚜렷한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제가 본 봉사자들은 정신건강이 맑고 투명한 것 같아요. 봉사목적이 뚜렷한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거를 남김없이 주고 보상 바라지 않고, 또 퍼줄 수 있는 건 진정성이라 생각하고 각종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자식이라도 혼낼 것 같은데 포용해주는 거 그런 걸 봤을 때 좋아 보였어요.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머니에 사탕 두 알 있으면 다 주려고 하는 거지 내가 하나를 먹어야겠다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소외계층,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운동 그런 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박00, 39세, 남성, 박사수료, 연구원)

## ■ 경청해주고 수용해주는 태도

“나는 남한가정에서는 9형제 중 맏며느리예요. 여기서는 진짜 상처를 안 받아요. 몰라도 괜찮고 다 잘해주고, 남한가족 중에선 남편이 제일 좋아요. 제가 우리 남편이 도인이라고 잘 표현하거든요. 남편이 왜 좋냐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났는데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그런 세상이나? 이렇게 말해주고. 내가 막 화내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오면 내가 쫓알거리거나 어쩌거나 그냥 가만히 지켜보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그랬구나 그랬구나 하면서 잘 들어주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수용을 다 해줘요.”

(이00, 50세, 여성, 대졸, 회사원)

## 5. 한국에 살면서 느낀 남한사람들의 나쁜 점은?

탈북민들은 한국에 살면서 남한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사느라 주변 사람에게 관심 없는 모습이 가장 나쁜 점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개인의 목표와 사생활을 중시하는 남한사람의 개인주의는 자신 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탈북민에게 비치고 있다. 친한 사람 몇 명

만 같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나 집단 전체의 인간관계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남한문화와 사람은 탈북민에게는 암체 같고 냉정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탈북민이 기억하는 북한은 ‘정(情)’이 넘치는 곳이다. 일할 때도 힘들어하면 같이 해주고, 가난한 가운데 서로 나누고, 일터에서도 체조라도 전 직원이 모여 같이 하면서 정을 나누는 분위기가 사람 사는 듯하고 따뜻하다는 것이다. 탈북민에게 자기 일만 알아서 하고, 서로 어울리는 일이 없이 사무적으로 일 처리하는 듯한 한국의 직장 분위기는 인간관계를 중시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 그 속에서 탈북민은 자신들에게 무관심한 남한사람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입시경쟁을 치르며 성장한 남한사람에게 경쟁문화는 익숙한 것이지만, 탈북민에게는 심한 경쟁으로 보인다. 이는 곧 남한 사람은 이기적이고 한국사회는 살벌한 곳으로 느끼게 만든다. 특히 사회의 소수자로서,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탈북민에게 남한사람은 돈을 중시하며 돈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특히 먹고 살기 바쁜 남한사람은 자신들에게 무관심하고 심지어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모습을 나쁜 점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표 3-3] 한국에 살면서 느낀 남한사람들의 나쁜 점

| 설문지 응답 내용              | 빈도  |
|------------------------|-----|
| 다들 바쁘게 살아서 남들에게 관심이 없다 | 113 |
| 개인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 104 |

|                        |    |
|------------------------|----|
| 돈을 중시하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 88 |
| 탈북민에게 무관심하고 무시한다       | 70 |

## ■ 다들 바쁘게 살아서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춥다고 생각했던 게 여름이었지만, 아침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표정해요. 움직이는 무생물체 같은 느낌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표정이 있어요. 힘이 난 다든가 얼굴을 보면 웃음기가 있고, 목적에 대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출근 시간 보면 끌려나가는 상태로 느껴져요. 너무 하기 싫고, 길 걷는 것 자체가 싫은 것 같다 그런 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런 게 차이가 있어요. 다들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김00, 51세, 남성, 대졸, 회사원)

## ■ 개인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북한은 공동체 의식이 있는데 남한사람은 너무 개인 중심적이다. 한국 와서는 개인 중심적인 게 알미운 거예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자녀관계에서도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최00, 64세, 여성, 대졸, 회사원)

## ■ 돈을 중시하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한국은 경쟁사회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십일조를 못하면 괜히 기가 죽어요. 내가 십일조를 많이 하면 막 격려해주시는데 제가 못하면 나를 대하는 그게 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자본주의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겠다 느끼게 돼요. 또 사람을 겉모습 보고 평가하잖아요. 여기는 모든 게 다 돈인 것 같아요.”

(박00, 39세, 남성, 박사수료, 연구원)

“한국에서 보면 미디어에 모든 게 다 돈이에요. 돈이 모든 걸 지배하고 이해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북한사람들은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데 남한은 형제간 갈등도 너무 심하고 형제들이 와서 재산싸움 하는 거 드라마에서 보면 돈밖에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떨쳐버릴 순 없어요. 묻지마 살인도 자본주의 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김00, 51세, 남성, 대졸, 회사원)

## ■ 탈북민에게 무관심하고 무시한다

“남한사람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면 인사 안 받아주고 그런 걸 느껴요. 북한에서 왔다고 신기하게 생각하면서도 멀리하는 느낌, 이런 것도 통일에 저해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북한사람이 신기해서 구경은 하지만 통일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꼈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동료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시험이 있는지도 몰라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일찍 준비를 못했어요.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공부해서 봤을 일찍 시험을 봤을 텐데 속상해요. 동료들이 그냥 저에게 무관심했어요.”  
(안00, 49세, 여성, 대학원 수료, 복지사)

“나는 이 사회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좋고 단점이 안 보였어요. 무조건 좋아 보여요. 단점은 남한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내게 관심이 없더라는 거였어요.”  
(이00, 50세, 여성, 대졸, 회사원)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온 사람들, 남북자들을 같은 동포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이 있는 데, 공동체 의식 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연민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게 제일 아쉬워요.”  
(박00, 39세, 남성, 박사수료, 연구원)

## 6. 남한사람에게 이럴 때 상처받아요

탈북민들은 한국에 살면서 직장생활에서 차별 경험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차별 경험의 유형은 언어에서의 차별, 업무분장 차별, 임금 차별, 승진 차별 등 다양하다. 탈북민이 한국사회에서 경

험하는 차별은 대부분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 탈북민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식 억양으로 말했을 때 즉각적으로 남한사람이 부정적 반응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또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도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임금 등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탈북민은 남북한 사람들 간의 관계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 출신이라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는 편견으로 탈북민에게 무조건 훈계하려고 할 때, 무조건 탈북민을 무시하고 이등국민 취급할 때 큰 상처를 받고 있었다.

[표 3-4] 남한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 설문지 응답 내용                | 빈도  |
|--------------------------|-----|
| 남한사람과 차별 대우할 때           | 133 |
| 탈북민에 대한 편견으로 훈계하려고 할 때   | 90  |
| 탈북민을 무조건 무시하고 이등국민 취급할 때 | 77  |
| 탈북민의 상처를 생각 없이 얘기할 때     | 51  |
|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할 때         | 13  |

## ■ 남한사람과 차별 대우할 때 상처받아요

“며칠 전에 센터장이랑 싸웠어요. 제가 2년 동안 참았어요. 다른 직원에게는 안 그러는 데 나한테만 전화 끊어, 안 먹어, 웃지마 이러시고 센터장의 태도가 나빠요. 퇴근 시간에 일을 새로 시키거나 강압적인 언사를 해요. 상담일지 검사, 결재 과정에서 반복

적으로 띄어쓰기, 맞춤법을 지적해요. 남한사람한테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으면서 나 같은 탈북민은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탈북민이니까 지적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해요. 센터에 근무하는 다른 남한 출신 복지사를 대하는 태도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안00, 49세, 여성, 대학원 수료, 복지사)

## ■ 탈북민이라고 선불리 판단하고 훈계할 때 상처받아요

“누구나 탈북민이면 겪는 건데요. 남한사람들이 남을 선불리 판단하는 거 있어요. 나를 안다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북한에서 직업선수였기 때문에 고향에 대해 스스럼없이 얘기 할 해요. 북한에서 왔다 하면 사람들이 표정이 바뀌어요. 지금은 신경을 안 쓰는데 간혹 약주를 하다 보면 살짝 훈계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습관이 되더라구요. 왜 훈계하려고 하는지 생각해보면 나를 좀 시기를 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남한사람들이 약자에겐 강하고 강한 사람에겐 약자인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박00, 39세, 남성, 박사수료, 연구원)

“남한사람은 북한사람을 낮게 보고, 일을 못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뭔데 이런 데 왔니, 당신이 올 곳이 아닌 데라는 태도로 탈북민을 대하는 남한사람들이 있어요.”

(최00, 64세, 여성, 대졸, 회사원)

■ 탈북민을 무조건 무시하고 이등국민 취급할 때 상처받아요

“남한 온 지 6일 만에 일하러 나갔어요. 12일 노가다 했어요. 나를 조선족인가 했겠죠. 남한분들은 통칭 우리를 조선족인 줄 알아요. 일 마치고 돈 달라니까 돈을 안 줘요. 서류 떼오면 돈 준대요. 탈북자는 사람 아닌 줄 아냐고 화를 냈지요. 그래서 돈 다 받았어요. 관리자한테 왜 이렇게 무시하고 차별하냐고 따졌어요. 다음부터 무직일 때도 있었지만 굶어 죽어도 노가다는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김00, 51세, 남성, 대졸, 회사원)

“탈북민을 이등국민이고 못 먹고 못 살다 온 사람이라는 게 남한사람들 머리에 깔려있더라고요. 목회학 공부하면서도 몇 번이나 울었어요. 서평 써내라 하면 똑같이 내는데 저는 떨어지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하하는 발언, 눈초리로 상처받았어요.”

(최00, 64세, 여성, 대졸, 회사원)

“한국 와서 식당에서 일했어요. 손님이 “아줌마 포크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단어를 몰라서 머뭇거렸더니 사장님이 짜증내서 내가 그만뒀어요. 못 사는 사람을 남한사람은 소외시키고 메마르고 각박해요.”

(안00, 49세, 여성, 대학원 수료, 복지사)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살기가 어려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다. 북한에 대한 그들의 기억은 배고픔과 절망, 본인과 가족의 질병, 가족의 죽음 등이다. 탈북민 자신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런 아픈 경험을 가지고 남한에 온 탈북민들은 남한사람들의 차별적 시선과 마주하게 된다. 그들의 아픔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남한사람은 북한의 기근, 가난, 독재, 두고 온 가족 등에 관하여 생각 없이 질문하여 그들의 아픔에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남한사람은 탈북민을 배신자, 거지, 범죄자, 가족을 버린 자 등으로 치부하거나 한국전쟁, 분단 역사 등과 관련하여 탈북민을 비난하기도 한다. 이러한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종류의 차별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의심과 경계심, 거부감을 드러내어 탈북민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특히 직장, 학교, 지역에서 만나는 탈북민 개개인에게 부정적 고정관념을 적용하여 무시하고 차별할 때 탈북민이 느끼는 상처는 클 수밖에 없다.

## ■ 탈북자의 상처를 생각 없이 얘기할 때 상처받아요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아봤어요. 내가 하는 업무가 북한사람 관련 업무를 하니까 다른 직원들이 북한사람에 대해 저러니까 욕 먹지하고 뒤에서 욕하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있는 앞에서 고향 사람 욕하는 거 들으면 내가 움츠러들고 자존감이 떨어져요. 주변에 자녀를 못 데리고 온 사람도 많은데 남한 출신 직원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는 데 애를 두고 온 사람 이해가 안 된*

다고 직원들이 얘기할 때, 그런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걸 외부에 표출 안 하고 쌓이니까 병이 생기더라고요. 화병이 생겼어요.”

(이00, 50세, 여성, 대졸, 회사원)

## ■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할 때 상처받아요

“북한사람이 막 왔을 땐 자존심 하나로 버티거든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 그나마 자존심이 있어요. 꺾여지지 말아야 한다, 어쨌든 살아야 한다. 그런데 너한테 안경 없으니 한번 써보라고 주는 데, 나는 자존심 하나 가지고 버티는데, 몇 푼 안 되는 이걸 내게 줬을 때 나도 살아갈 돈은 있다, 기분이 좀 나뉘어요. 나랑 같은 입장의 사람이 탈북자들이 서로 주는 건 좋지 만 생활수준 다른 한국사람이 줬을 땐 그건 상처로 다가오더라고요.”

(안00, 49세, 여성, 대학원 수료, 복지사)

“북한사람은 오기와 자존심이 있어요. 제가 제일 적응이 힘들었던 게 일은 아니지만, 제일 힘든 게 수다더라고요. 북한 문화는 수다를 해도 법보다 주먹이 앞에 있어서 남 소리 잘못하다가 몸싸움 날 수 있어서 남 소리를 크게 안 하거든요. 여기오니까 상사 욱부터 시작해서 일을 해야 해, 말아야 해 등. 여기는 민주주의니 뭐니 해서 다 수다로 풀어요. 나는 수다문화에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도 적고 여기 사람들은 해외

경험이 많고, 우리는 남한도 경험을 못 했는데 해외 애길 하고, 자본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회주의에서 살다 보니 자본이 기본이 아니잖아요. 왔으니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그 수다에 낄 틈이 없어요. 문화를 모르니 멍청해지고, 자존심 상하고 힘들었어요.”

(이/00, 50세, 여성, 대졸, 회사원)

## 7. 남한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 편견이 깨졌다면 어떤 계기로 그랬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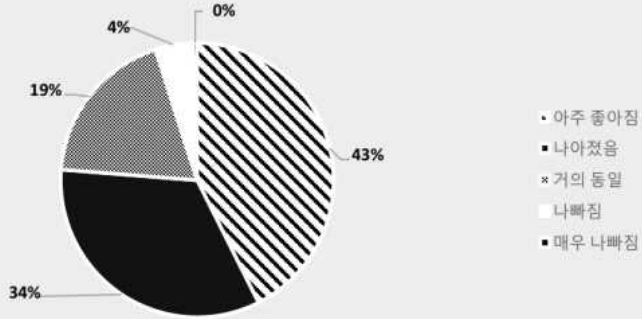
탈북민들은 입국 초기 남한사람과 접촉하면서 남한사람에 대해 ‘이면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졌었다고 한다. 하지만 남한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생각의 변화가 왔다고 고백했다. 설문지에 응답한 탈북민 중 북한에 있을 때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남한사람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42.6%였으며, 나아졌다고 응답한 탈북민은 33.7%였다. 북한에서 생각했던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응답한 탈북민은 18.8%였다. 반면 북한에 있을 때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한 탈북민은 4.9%에 불과했다. 이처럼 탈북민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남한사람이 이면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들도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에 차츰 적응하면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남한 출신 친구가 여럿 있다고 대답한 탈북민은 50%, 소수 있다고 응답한 탈북민은 41.6%였다. 신뢰할 수 있는 남한 친구가 아직 없다고 대답한 탈북민도 8.4%였다. 탈북민들이 가장 오래 교류한 남한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31.7%), 긍정적(53%), 보통(13.9%), 부정적(1.4%)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이 결과를 보면 탈북민들은 한국사회에 살면서 믿을 수 있는 남한 출신 친구들을 만나 교류하며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런 남한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서로의 가치관과 문화, 생활방식을 이해하면서 믿음이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가졌던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탈북민들은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열심히 살면,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점차 이해할 수 있었으며 편견이 점차 사라졌음을 고백했다.

☐ 북한에 있을 때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남한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나요?

| 아주 좋아짐    | 나아졌음      | 거의 동일     | 나빠짐     | 매우 나빠짐  |
|-----------|-----------|-----------|---------|---------|
| 86(42.6%) | 68(33.7%) | 38(18.8%) | 9(4.5%) | 1(0.4%) |

북한에 있을 때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남한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나요?



□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남한 출신 친구가 있나요?

| 여럿 있음    | 소수 있음     | 없음       |
|----------|-----------|----------|
| 101(50%) | 84(41.6%) | 17(8.4%) |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남한 출신 친구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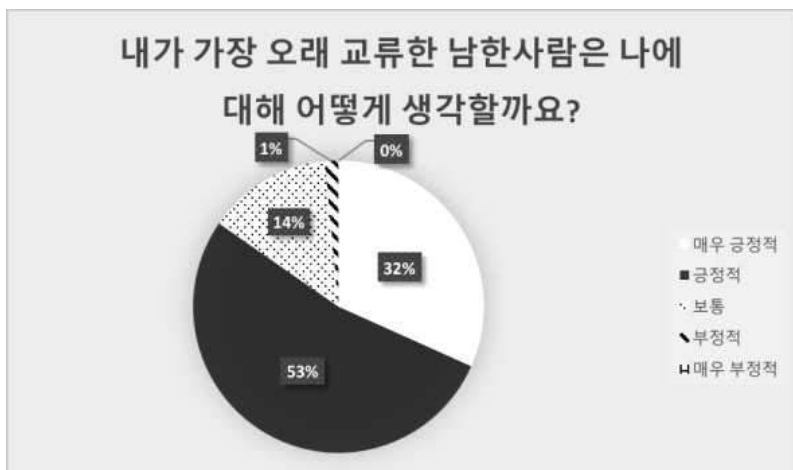


□ 남한 친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 성격·인품 | 문화  | 인맥 | 사회 적응 | 동네·지역 | 학력 | 경제력 |
|-------|-----|----|-------|-------|----|-----|
| 149   | 108 | 73 | 69    | 32    | 27 | 24  |

□ 내가 가장 오래 교류한 남한사람은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
| 64(31.7%) | 107(53%) | 28(13.9%) | 3(1.4%) | 0      |



## ■ 남한사람은 이면적이다

“남한사람은 앞에서 대하는 태도와 뒤에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탈북민을 평가해요. 암체, 여우 짓, 겉치레를 많이 하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남과 북의 차이인데 경쟁사회와 집단주의 사회 때문에 그렇죠.

(안00, 49세, 여성, 대학원 수료, 복지사)

## ■ 남한사람은 이기적이다

“근데 한국사회는 사기꾼이 많구나. 자본주의 국가니까. 지금이나 예전이나 느낀 편견은 하나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 희생정신 이런 게 없더라. 개인적인 성향, 자기 위주, 배려가 전혀 없더라.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박00, 39세, 남성, 박사수료, 연구원)

## ■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잘하면 편견이 깨어진다

(만약 편견이 깨졌다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잘하면 생각이 깨어진다고 생각해요. 제 일 나뉘던 건 남을 해코지하는 현장을 봤을 때 그게 충격이더라고요. 10년이 지나고 적응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나쁜 사람이 병이 있는 환자 같아요. 그래서 괜히 화를 낸 것 같아요. 내가 회사생활 쉽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화딱지 나는 사람을 환자로 바라봐요. 나도 스트레스 풀지 못해서 아팠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날 욕했던 것 같아요. 좀 건강해지니까 남이 욕하거나 말거나 무덤덤하더라고요. 환자의 표현방식이 짜증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환자로 바라보고 불쌍하게 바라보니까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생활에 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00, 50세, 여성, 대졸, 회사원)

## 8. 남한사람과 다른 북한사람의 특징은?

[표 5] 남한사람과 다른 북한사람의 특징

| 설문지 응답 내용                            | 빈도  |
|--------------------------------------|-----|
| 직설적으로 말하는 문화여서 에둘러 말하면 오해를<br>할 수 있다 | 134 |
| 행동과 말투(말솜씨)가 과격하다                    | 104 |
| 칭찬, 감사를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을<br>어색해한다    | 89  |

|                                               |    |
|-----------------------------------------------|----|
| 잘 다투지만 뒤끝이 없다                                 | 73 |
| 순진하고 정이 많다                                    | 53 |
|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br>(남한사람과 솔직하게 말하기 어렵다) | 37 |
| 조직과 공동체에 의존한다<br>(당과 국가의 통제 하에 있다)            | 34 |
|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려고 한다                             | 18 |
| 타협을 항복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 15 |

## ■ 북한사람은 직설적으로 말하고 행동과 말씨가 과격하다

“북한사람은 다혈질이라면 남한사람은 상냥해요. 북한사람은 속이 드러나는 데 남한사람은 속을 알 수 없어요. 남한사람보다 말과 행동이 과격해요.”

(이00, 50세, 여성, 대졸, 회사원)

“북한사람은 가식이 없어서 불필요한 건 생략해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죠. 만났을 때 높임말을 써주는 걸 좋아해요. 친구 간엔 동무, 뒷사람은 동지로 불러요.”

(박00, 39세, 남성, 박사수료, 연구원)

“남한사람들이 외유내강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자기감정을 잘 표현 안 해요. 그냥 웃고 자기 속에 감정 깔고 있어요. 이건 잘한

다고 생각하고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북한사람은 처음엔 강한데 약해요. 속이 약해요. 북한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문화라 예들려 말하면 오해를 살 수 있어 말이나 행동이 강해요. 남북한 사람이 서로 쌍방 다르잖아요. 서로 반대인데.”

(최00, 64세, 여성, 대졸, 회사원)

“북한사람은 위선적으로 예들려 말하기보다는 직설적이다, 그렇게 표현하라고 교육받았고 숨기지 말라고 그런다니까요. 숨기면 위선자, 나쁜 놈 이렇게 교육받았잖아요.”

(김00, 51세, 남성, 대졸, 회사원)

## ■ 북한사람은 칭찬, 감사를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을 어색해 한다

“남한분들은 상냥하고 북한사람들 순진해요. 남한사람들은 속내를 안 드러내지만 북한사람은 조금만 칭찬받으면 진심을 다 바쳐요. 그래서 진솔함을 표현하는 게 필요해요. 북한사람 만날 때 감정을 잘 읽어야 할 것 같아요. 남을 칭찬하거나 고마움을 표현하는 걸 쑥스러워서 안 하니까 순수함을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해요.”

(안00, 49세, 여성, 대학원 수료, 복지사)

“남한사람은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랬는데 그건 수인사고 진짜가 아니잖아요. 북한에 가서 밥 한번 먹자 이랬는데 안 하면 사기

꾼이 돼요. 빈 소리가 없어요. 북한에선 그런 건 사기로 생각하고. 많이 단순해요. 남한사람은 빈 소리 하고, 북한사람들은 속으로는 고마워하는데 말로 표현을 못 해요. 칭찬이나 감사를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을 어색해 해요.”

(박00, 39세, 남성, 박사수료, 연구원)

## ■ 북한사람은 순진하고 정이 많다

“북한사람은 워낙에 따뜻한데 마음이 따뜻해요. 북한사람들이 힘들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배급주의였으니 단순히 살았어요. 북한사람은 그렇게 인색하진 않아요. 여기처럼. 북한은 인민반이 있어 상부상조하는데, 아직까지 인정이 통해요.”

(최00, 64세, 여성, 대졸, 회사원)

“북한사람은 강하고 전체적으로 세요. 그러면서도 순수하고 단순해요. 이웃이나 형제애가 돈독해요. 가족 간에 없을수록 돈독하고, 나라가 중요하고 충성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북한은 이웃, 형제가 똘똘 뭉쳐서 단합이 잘 돼요. 흩어지지 않거든요. 북한은 정이 많아요.”

(이00, 50세, 여성, 대졸, 회사원)

## ■ 조직과 공동체에 의존한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한국에서 보는 탈북자의 모습을 북한사람으로 매도하지 말아요. 북한사람들은 착하고 조직에 의존하고 시간개념 정확해요. 제대로 조직생활 하던 사람들은 안 그래요. 한국 미디어에 출현하는 탈북민들은 왜곡이 많아요. 탈북자의 잘 못된 부분을 순 북한의 문화로 받아들이지 말아줬으면 해요.”

(김00, 51세, 남성, 대졸, 회사원)

“북한교육은 조직에 묶어 세우려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요. 정규화된 교육 10~12년을 받는데 북한사람들은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그러니 조직, 공동체에 의존해요.”

(최00, 64세, 여성, 대졸, 회사원)

“북한사람은 세뇌되었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살라고. 나만 욕심내면 이기주의자라고 몰려요.”

(박00, 39세, 남성, 박사수료, 연구원)

## 9. 탈북민이나 북한주민을 만났을 때 조심하거나 절대 묻지 말아야 할 말은?

북한주민이나 북한 출신 탈북민들은 한국과 다른 사회주의 체제, 수령독재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탈북민들은 본인과 가족의 가

난, 기아, 질병, 죽음을 경험하고, 북한에서 살기가 힘들어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회에서 다른 교육을 받으며 생활했기 때문에 남한사람과 다른 가치관,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다. 탈북민들은 한국사회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했다. 묻는 사람은 호기심과 보기가 안되어서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을 듣는 탈북민들은 자신의 상처를 상기해야 한다. 이들은 힘들게 한국으로 오면서 말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기도 했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물으면 불편한 마음에 생길 수밖에 없고,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게 마련이다. 배려심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먼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면 질문을 삼가해 주어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이 자주 만나 교류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이 듣기에 거북한 얘기를 꺼내지 않아야 한다. 남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가난한 나라라고 자존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주민은 일본식민지로부터 항일운동을 통해 스스로 나라를 해방했다는 자부심, 한국전쟁 시 초강대국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교육받으며 성장했다. 그래서 북한주민은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자부심이 강하다. 가난한 나라라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동정 섞인 말이나 식량지원과 원조에 관한 이야기는 조심해서 해야 한다. 물론 미국과 일본을 두둔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기아와 죽음, 가족과의 생이별을 경험한 그들에게 사생활이나 가족사, 직업이나 주택 등에 대한 사적인 질문은 가능한 묻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수령’이라는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조선노동당’의 지도하에 국가 전체가 운영되는 집단주의 사회이므로 당과 수령에 대한 비판은 삼

가야 한다. 북한 안내원의 허락 없이 북한주민 개개인과 만나는 일은 몰래 남한사람을 접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행동이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표 3-6] 탈북민이나 북한주민을 만났을 때 조심하거나 절대 묻지 말아야 할 말

| 설문지 응답 내용                                          | 빈도  |
|----------------------------------------------------|-----|
| 자존심을 건드리는 동정 섞인 말                                  | 125 |
| 개인사생활 및 가족사                                        | 84  |
| 당과 수령에 대한 비판                                       | 52  |
| 미국과 일본을 두둔하는 말                                     | 41  |
|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                                        | 39  |
| 월급과 주택에 대한 질문                                      | 30  |
| 허락 없이 북한주민 1인과 만나는 일<br>(몰래 남한사람을 접촉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 | 27  |
| 식량지원과 원조에 대한 이야기                                   | 11  |
| 직업에 대한 질문                                          | 9   |

## ■ 자존심을 건드리는 동정을 하지 말 것

“자존심으로 버티는 북한이에요. 동정의 입장으로 하지 말아라. 소소하게 주는 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요. 들어만 주면 좋겠어요. 남한은 이렇게 좋은 세상이다 이런 말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인터뷰하듯이 애길 들어주면 좋겠어요.”

(안00, 49세, 여성, 대학원 수료, 복지사)

“북한사람은 자존심이 높아요. 군사통치권을 북한이 갖고 있어요. 아무튼 북한은 자립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80년대까지는 어려운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난하다고 자존심을 건드는 동정은 하지 말아야 해요.”

(박00, 39세, 남성, 박사수료, 연구원)

“북한사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개인적인 거,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돼요. 쥐불도 없는데도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북한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내용은 먹고사는 문제, 지역의 이야기를 해야지요. 자기 지방의 얘기를 해야지 좋아하지요.”

(김00, 51세, 남성, 대졸, 회사원)

“먼저 일 얘기 하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얘기해야지요. 공적 얘기 하다 나면 자연히 가까워지는 거죠.”

(박00, 39세, 남성, 박사수료, 연구원)

## ■ 개인사생활 및 가족사

“가계(가족에 대한 이야기) 자주 묻지 마요. 개개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자주 후비지마요. 가슴 아픈 소리 자주 묻지 마요. 스트레스가 또 생기는 거야.”

(김00, 51세, 남성, 대졸, 회사원)

“가족 중에 죽었거나 피해를 안 본 가족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 안에도 있는 데, 아사 시절 때에는 굶어 죽은 사람도 많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훔치거나 나쁜 짓 안 한 사람 없어요. 총살하는 현장도 보고 했으니까, 본인이 술술 먼저 할 때는 괜찮지만 가정사를 묻지 말아라. 북한사람 특징이 자랑을 많이 해요. 그건 들어주되, 사생활은 개인사는 묻지 말아라.”

(박00, 39세, 남성, 박사수료, 연구원)

“초면에 개인정보 파악하려는 거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애길 한다고 하지만, 탈북민한테 가족관계 물으면 절대 안 돼요. 100%가 가족관계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00, 49세, 여성, 대학원 수료, 복지사)

“중국에 오래 거주한 탈북여성에게 그들이 먼저 말하기 전에 절대 중국 생활을 묻지 말아야 해요. 중국에서 오래 사셨네요, 잘 오셨네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요. 상처받은 여자들이 많아요. 팔려가서 살았어요.”

(이00, 50세, 여성, 대졸, 회사원)

“탈북민에게 왜 고향을 떠났냐고 묻지 말아요. 고향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온 데는 그만한 상황이 있었다. 그러니 왜 고향에 있지 여기 왔냐고 말하지 말아요. 북한은 정말 좋은 사회다. 거기서 살 때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고향이니까요.”

(김00, 51세, 남성, 대졸, 회사원)

“사적인 부분을 꼬치꼬치 묻는 것도 안 좋아요. 남한의 방식은 나이가 몇이냐 대화를 끌어내려고 하는 건데, 북한사람 입장은 그게 아니지요. 문화가 다르니까. 대화방식이 좀 달라요. 대화문화의 차이가 커요. 북한사람은 긴 걸 핵심만 간단히 말해요. 북한사람들은 청각도 고음에 맞춰져 있어요. 추운 환경이라 북한은 크게 얘기하고 핵심만 하는데, 그게 여기 사람들에게겐 예의 없어 보이는 거지요.”

(최00, 64세, 여성, 대졸, 회사원)

## ■ 당과 수령에 대한 비판

“정치적인 것, 얘기하지 말아야 해요. 수령, 당, 국가모독 절대 안 돼요. 칭찬은 해도 돼요. 정치적 발언, 수령의 우상화 등은 묻지 말아요.”

(이00, 50세, 여성, 대졸, 회사원)

“먼저 일 얘기 하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얘기해야지요. 공적인 얘기 하다 보면 자연히 가까워지는 거지요. 수령 얘기도 하지 말고. 북한사람도 마주 앉으면 경제 얘기만 해요.”

(박00, 39세, 남성, 박사수료, 연구원)

“우리 삼촌이 안전성에 있으면서 마누라가 얘기했는데 말이 돌아가지고 비판서 쓰고 그런 고생을 했어요. 김일성 가족에 대해 묻는 건 큰일나요.”

(최00, 64세, 여성, 대졸, 회사원)

## ■ 미국과 일본을 두둔하는 말

“북한은 일본과 싸워서 이겼고 미국과 전쟁에서도 이겼잖아요. 제국주의 타도하자고 배웠는데 미국과 일본을 두둔하는 말을 하면 싫어해요.”

(박00, 39세, 남성, 박사수료, 연구원)

## ■ 종교 얘기는 하지 말 것

*“종교 얘긴 북한사람에게 무의미해요. 미신, 점, 성황당은 있지만 종교는 없으니 종교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안00, 49세, 여성, 대학원 수료, 복지사)*

### 10. 탈북민과 친해지려면 남한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남한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오랫동안 북한 체제 속에서 살다 온 탈북민들과 친해지려면 먼저 그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아왔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남한 출신 주민과 북한 출신 주민이 모두 행복하게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선해야 한다. 특히 한국사회 소수자인 탈북민에 대한 이해가 우선해야 하며, 다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탈북민들은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그들은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속상한 일이 생기면 외부와 담을 쌓고 혼자 고민한다. 이것은 감시가 많은 북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지 못하던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 그들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가까워지려면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다. 탈북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심을 담은 교류를 지속할 때 서로 친해지고 믿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와 함께 탈북민 스스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남한사람의 부정적 편견도 사라질 수 있다. 그래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 통일사회가 올 수 있는 것이다.

## ■ 진심이 담긴 교류

*“진심이 담긴 교류가 필요해요. 탈북자 결혼할 때 가보면 결혼식장이 텅 비어요. 눈물 나요. 그러니 탈북자들은 더 힘들어요.”*

*(김00, 51세, 남성, 대졸, 회사원)*

## ■ 지속적인 관심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하고 북한에 대해 알려고 노력해야 해요. 탈북민을 무조건 하등국민 취급하는 거 그런 거 안 해야 해요. 탈북민이 먹고 살려면 취업을 하게 해야 해요.”*

*(김00, 51세, 남성, 대졸, 회사원)*

*“우리를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중간중간 만나서 격려해 주고 얘기 들어주면 삶의 모퉁이마다 의지가 되요.”*

*(최00, 64세, 여성, 대졸, 회사원)*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칭찬도 너무 과하면 안 좋아요. 칭찬도 너무 많이 하는 건 안 좋으니까.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수다 떨지 말구요.”

(이00, 50세, 여성, 대졸, 회사원)

## ■ 남한사람의 인식 변화는 탈북민 행동에 달렸다

“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니 법규를 만들어야 해요. 장애인 무조건 몇 프로 고용해라 이것처럼 탈북자 몇 프로 고용해라 이거 법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받아주고 쉽게 하고 못하게 하고. 남한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탈북민인 우리가 바뀌야 해요. 근로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 형식적으로 정부에서 후원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내세워야지 그럼 자연히 남한사람 인식도 변합니다.”

(김00, 51세, 남성, 대졸, 회사원)

## 11. 남한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후배 탈북민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 ■ 지나친 기대, 의존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라

“우리는 북한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공짜 혜택을 받았잖아요. ‘공짜’ 개념이 한국에 와서도 안 버려지는 거지,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야 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라, 정직하라, 말씀대로 살고 기도 열심히 해라, 잘난 체하지 말고 불쌍히 보여라.”

(박00, 39세, 남성, 박사수료, 연구원)

## ■ 멘토를 만들어라

“남한사람 멘토를 만들어라. 먼저 온 탈북민 선배 멘토도 만들고 열심히 살아라. 인간의 속성이 약해서 뭔가를 의지하려 하는 데 필요하니 종교도 가지는 게 좋아요. 무조건 일을 시작하면 3개월 이상 버텨라.”

(최00, 64세, 여성, 대졸, 회사원)

“탈북자들 말을 듣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탈북자 성공사례 의식적으로 만들지 말고요. 탈북자들은 자기 본 것만 말한다, 부딪혀서 그러니 직접 배워라. 성공사례 의식적으로 만들지 말라. 남한사람 말 들으면서 부딪히면서 나가라.”

(김00, 51세, 남성, 대졸, 회사원)

## ■ 먼저 인정받는 게 중요하니 인정받도록 행동하라

“인정받도록 행동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남한 사회, 회사에서 인정받도록 일하자, 자신의 일에서 베테랑이 되라고요. 그러려면 공부하고 자격증 따라, 40대 이상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면 좋다. 월급, 퇴직금, 연차,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 있어 좋다.”

(안00, 49세, 여성, 대학원 수료, 복지사)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사 잘해라, 먼저 인사해라, 시간 약속 잘 지켜라, 차분차분 좁게좁게 가다보면 인정해준다.”

(이00, 50세, 여성, 대졸, 회사원)

## ■ 현재의 삶을 행복하다고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먼저 자기를 다 내려 놓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고집, 자존심 내려놔야 해요. 둘째, 내가 처한 환경을 수용하려면 주체성을 가지고 수용하려 하면 행복해진다. 셋째, 난 예전에 이랬는데 이런 걸 버려야 한다. 넷째, 지금 것을 행복이라 느껴야지 그리움, 수모, 경제난, 어려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 먼저 감사한 걸 찾아야 한다.”

(박00, 39세, 남성, 박사수료, 연구원)

## 12. 남북교류가 활발해지거나 통일이 이루어지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인터뷰에 참여하고 설문지에 응답한 탈북민들은 통일을 무조건, 언제나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탈북민들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에 성공해 남과 북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함께 잘 사는 평화로운 미래를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통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하는 탈북민도 있었다. 빨리 통일해야 한다, 여건을 보가며 속도를 조절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7.8%였지만,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15.3% 있었다. 그리고 북한에 거주했을 때는 73.3%가 빨리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남한에 거주하면서 빨리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48.1%)이 줄고 여건을 보가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29.7%)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현재 한국생활의 만족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7] 통일에 대한 생각

| 설문지 응답내용                | 북한에 거주할 때 생각 | 남한에 거주할 때 생각 |
|-------------------------|--------------|--------------|
|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 148(73.3%)   | 97(48.1%)    |
| 여건을 보가며 속도를 조절해 추진해야 한다 | 10(4.9%)     | 60(29.7%)    |

|                |           |          |
|----------------|-----------|----------|
|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 4(2%)     | 18(8.9%) |
| 굳이 통일 할 필요가 없다 | 4(2%)     | 13(6.4%) |
| 잘 모르겠다         | 32(15.8%) | 10(4.9%) |
| 기타             | 4(2%)     | 4(2%)    |

따라서 통일국가에 대한 긍정적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 간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탈북민(북한주민)의 경우 남한주민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는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감정은 탈북민(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남한주민과의 접촉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직장, 학교 등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차별의 경험은 남한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으로, 경계와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이런 차별과 편견 경험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나 긍정적 인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에의 소속감을 거부하게 할 위험성을 지닌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에 먼저 온 탈북민과 남한 출신 주민 간의 사회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전쟁의 공포가 없어진 평화로운 미래

*“북한은 스스로 개혁개방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해요. 그들은 스스로 개혁개방을 선택하고 우*

린 유도만 해야 해요. 소련은 핵이 없어서 붕괴한 게 아니라 핵을 가지고도 붕괴했어요. 바로 식량지원이 필요해요. 식량 지원하면 남조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황색바람,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지요.”  
(김00, 51세, 남성, 대졸, 회사원)

“가슴이 흥분돼요. 유라시아 철도 개통되면 너무 좋겠어요. 이질감이 해소되면서 쌍방이 교류하면서 왕래했으면 좋겠어요. 두 제도를 인정하면서 미래가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안 되겠지만 북한도 막연하겠죠. 이질감이 해소됐을 때, 미래가 펼쳐진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전쟁의 공포가 없어지고, 평화, 세계적인 관광도시, 미래가 보여요.”  
(최00, 64세, 여성, 대졸, 회사원)

## ■ 통일은 어려울 것 같아요

“통일이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된다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되면 주력기업들은 이윤창출은 되겠지만 국민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기업은 득이 될 것 같아요. 북한에는 자원도 있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유리공장도 있고 등등. 기업이 살지 국민한테 혜택은 없다고 봅니다.”  
(김00, 51세, 남성, 대졸, 회사원)

위와 같이 남한주민에 대한 탈북민의 인터뷰 및 설문지 결과를 살펴보았다. 탈북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과정에서 남한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북한에서 생각했던 남한사람과 한국에 살면서 달라진 남한사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탈북민이 한국에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원리를 배워야 하고 남한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남한사람도 탈북민의 사고나 행동양식을 이해하고 함께 잘 지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남북한 주민들이 심리적 장벽을 넘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야 한다. 탈북민과 남한사람 간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서로의 거리를 지혜롭게 해결한 사례를 공유해야 한다. 갈등이 남북한 사회의 차이로 인한 갈등임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해보고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한 주민이 공존하는 평화롭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해 본다.

## 남한 주민들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 인터뷰

김영지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본 인터뷰는 남한사람이 향후 북한사람과 합법적으로 교류할 때 어떠한 배경지식을 갖고 만나는 것이 좋을지를 알아보기 위한 취지로 설계되고 진행되었다. 북한과 적극적인 교류, 혹은 통일에 다다를 수 있으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북한 주민을 남한 주민들이 직접 만날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탈북민을 만나 본 남한 주민들의 경험담에 기초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심층인터뷰의 질문내용의 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시된 질문들은 그간 남한주민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기존 문헌들

을 참고하고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질문들을 1차적으로 추려내었으며 그 후 기존 문헌에는 없지만 살펴보면 좋을 것이라 사료되는 질문들을 토론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인터뷰는 총 5명이 참여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궁극적으로는 남한사람과 북한사람들이 서로를 잘 이해하여 한반도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근거들을 탐색해 볼 수 있었다. 단, 다채로운 의견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참여자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다음의 조사내용을 보기 바란다.

## **1. 탈북민과의 교류경험을 말씀해주세요.**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남한의 일반국민)의 배경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탈북민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최초로 탈북민을 만났을 때의 연령대는 20대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나이는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였다. 탈북민을 만나본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참여자 중 조선족인 줄 알고 우연히 만나게 된 경우가 있기도 했지만 주로 외부활동이나 직업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살면서 총 2번 정도 새터민을 만나봤습니다. 한번은 직업상담사로 일할 때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할 때 취약계층으로 새터민 내담자를 만나 봤구요, 다른 한번은 대학교 때 중국 해 외인턴을 갔을 때 새터민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두 분 다 3 개월 이상 만나봤어요.”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공부하다가 주변의 친구들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많지는 않고 한 5명 정도요. 3사람은 학생인데 2사람은 그들의 가족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세 사람은 종종 만나봤어요. 1년 넘 게요. 한 친구는 외동이고 두 친구가 가족이 있었어요.”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교회에서 통일선교부서 활동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탈북민 정착지원단체인 하나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4년간 활동 했구요, 2-3일에 한번 정도씩 담당 탈북민을 만났어요.”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실제로 탈북민을 만난 건 미국 교회 나가면서 봤고 거의 과제 때문에 기말 과제 같은 특수한 경우에 만났죠.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서 유대감은 형성이 되었는데 들은 얘기하고 경험한 거 하

고 다르더라고요.”

(안00, 59세, 여성, 대학원 박사수료, 연구원)

※ 탈북민에 대한 생각

## 2. 탈북민을 직접 만나기 전에 가졌던 탈북민에 대한 생각은?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인터뷰 참가자들이 탈북민을 만나보기 전에는 탈북민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 생각은 부정적, 생각해 본 적 없음, 남한국민과 유사할 것,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혼합된 복합적 인식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식을 가진 참여자의 경우 북한정권에 대한 반감을 탈북민에게 투영하고 있었고, 북한정권에 대한 반감은 언론매체의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생각해 본적이 없는 경우는 참여자 본인의 문제와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남북관계 경색기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덜 했고 따라서 본인도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했다. 복합적인 인식을 제시한 참가자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탈북민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반대로 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서 다소 우려섞인 의견을 제시 하였다.

## ■ 부정적

“만나기 전에는 북한 자체가 폐쇄적인 국가다 보니까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도 원만히 대화할 수 있을까 의문도 있었고,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얘기도 많이 안할 것 같고, 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저 역시도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반감이란 건 체제자체가 김일성때부터 정서적으로 우리나라랑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고방식 자체가 다를 것 같고 ‘뭔가 세뇌 당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을 보기보단 좀 그랬죠. 솔직히 언론에 비춰진 북한의 모습. 뉴스를 통해 이런 생각이 굳어지게 된 것 같아요.”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 ■ 생각해 본 적 없음

“그냥 ‘북한 사람이다’라고만 느꼈어요. 탈북민에 대한 이미지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북한에서 살다가 넘어왔구나’라고만 생각했어요. 나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문제니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만나기 전에는 솔직하게 아예 관심도 생각도 없었던거 같아요. 남북관계 경색기였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 남한국민과 별 차이가 없을 것

“남한사람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남한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탈출하고 입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 ■ 복합적(긍정적+부정적)

“탈북민에 대해서 잡지일을 하다가 봤던거여서. 탈북민에 대한 생각은 기독교 담론식으로 ‘통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사람?’ 이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잘 못하면 통일도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기저에는 흡수통일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존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자본주의식으로 어떻게 되어 그들이 다시 북한에 갔을 때 체제전환이라던가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신앙적인 차원이었던 거죠”

(안00, 59세, 여성, 대학원 박사수료, 연구원)

## 3. 탈북민을 만나본 경험이 있다면, 탈북민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탈북민들이 참여자들과의 접점에서 어떻게 대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그 행동은 남한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관련 깊게 나타났다.

하00의 언급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내담자로 만난 탈북민은 상담을 해주는 하00에게 매우 솔직하게 모든 어려운 얘기들을 가감 없이 말해주었으나 중국에서 우연한 기회에 조선족인줄로만 알고 만난 탈북민은 혹시라도 자신의 정체를 중국공안에 얘기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00에게서 거리를 두려고 굉장히 의식하고 있었던 점을 언급하였다. 이00는 친구관계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그를 편하게 대해줬다고 하였고 김00은 교회에서 탈북민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의 바르게 대했다고 밝혔다. 지00 또한 센터직원이라는 사회적 위치에 있다 보니 탈북민이 순수하고 솔직하게 대해줬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안00은 미국에서 이주민으로 만났을 때 오히려 만났던 탈북민들이 더 나은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챙겨주는 입장이었다고 하였다.

## ■ 솔직하게 대함

*“취업성공패키지라는 프로그램에 상담받으러 온 탈북민은 생각 외로 되게 솔직한 부분이 많으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본인이 탈북해서 오는 과정부터 해서 생활에 대한 부분을 생각 외로 솔직하고 빠르게 얘기해 주었어요. 나이대는 40초중반 정도였고요. 자기의 어려운 얘기들을 해주시는 걸 보니.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분들이 솔직하고 남한과 북한의 그런 오랜 갭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잘 할 수 있다는 점에 놀랐어요.*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 ■ 거리를 두기도 함

“처음엔 탈북하신 분인지는 몰랐고 조선족인줄 알았어요. 결국 탈북민이라걸 안다는 것에 대해 거리를 두려고 하고, 불편해 했고, 의식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 ■ 편하게 대함

“주변 친구들을 통해 만났으니 그들도 저를 그냥 편한 친구 대하듯이 대해줬어요.”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 ■ 예의바르게 대함

“탈북민은 나를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그건 제가 교회에서 탈북민에게 무엇인가를 주는(정기적으로 돈, 선물을 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같습니다.”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 ■ 오히려 나를 더 챙겨줌

“처음 만났을 때 미국에서는 나도 이주민이고 내 위치도 불안정했어요. 나는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돈을 벌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사람들 신분이 영주권을 안 받았어도 work 비자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들은 차도 가지고 다니고. 저도 차는 있었지만 그들이 더 안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반찬 같은 거 나눠주고 그랬어요. 오히려 나를 더 챙겨 주는 입장이었지요. 여기서(한국에서) 탈북자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란 인식이 있었는데 거기 갔을 때는 서로 비슷한 거예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도 불안정한 상황에 가니까 '나나 그들이나 비슷하구나', '나도 누가 도와준다면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깐 비슷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안00, 59세, 여성, 대학원 박사수료, 연구원)

### 3-1. 나는 탈북민을 어떻게 대했나요?

참여자들은 대체로 탈북민을 대함에 있어 그들의 사정을 공감해 주고 인격적으로 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 대 인간’, ‘아주 편하게’, ‘인격적으로’, ‘남한사람 대하듯이’라는 표현에서도 잘 알 수 있다.

#### ■ 인간 대 인간

“막상 대했을 때 소통하는데 어렵거나 반감의 과정, 공감이 돼서 새터민이라는 걸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난거죠.”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 ■ 아주 편하게 대함

“친구의 친구니까 말 그대로 친구로 생각했죠. 아주 편하게 대해줬어요.”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 ■ 인격적으로 대함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 ■ 거리를 두지 못하고 감정 이입됨

“제가 상담을 맡게 된 분이라서 사실 거리를 뒤편 하는데 감정 이입이 된 것 같아요. 그들이 살아온 삶이 평범하지 않으니깐 나라도 저런 환경에 처한다면 나라도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싶었고.”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 남한사람 대하듯이 대함

“내가 당시 미국에 이주민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탈북민들)도 이주민인 느낌이었지요. 그 사람들도 나를 볼 때 우월하게 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지요. 저는 그냥 그 사람들 대할 때 남한 사람 대하듯 똑같이 대했죠.”

(안00, 59세, 여성, 대학원 박사수료, 연구원)

### 3-2. 혹시 북한정권과 탈북민을 동일하게 생각해 본 경험이 있나요? 왜 그랬나요?

참여자들은 본 질문에 대하여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 → 동일하다’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특이하게도 동일하다고 한 참여자는 그 이유로 언론매체의 영향을 언급하였고 ‘다르다’에서 ‘동일하다’로 생각의 변화를 겪은 참여자는 변화된 계기로 교육의 영향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 ■ 동일하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북한정권과 탈북민을 저도 모르게 동일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 하도 나쁘게 말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았나봐요”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 ■ 다르다

“구분하고 있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니까 정권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정권의 요구에 반대해서 탈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북한 정권은 정권이고 북한 사람들은 사람들이죠. 북한학을 공부하기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던 게 나는 예전부터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훨씬 반감이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북한주민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썼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북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를 많이 했죠. 어쨌든 북한이라는 정권하고 동일시해서 보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안00, 59세, 여성, 대학원 박사수료, 연구원)

#### ■ 다르다 → 동일하다

“처음에는 아예 다르게 생각했어요. 탈북민을 보면서 북한사회를 알게 되었고 이분들의 일상과 얘기를 알다 보니까 '나라의 환경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못하고 탈북했고, (그 사회는)인간이 살 수 있는 사회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정권에 대해 경계하는 마음은 있었죠. 그런데 공부하면서는 그분들의 생활과 상호작용하는 면이 있다는걸 알게 된 거 같아요. 그들이 순순하고 솔직하지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있는걸 보면 그 사회를 반영하지 않나 생각했어요.”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4. 탈북민을 만나면서 느낀 탈북민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여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탈북민의 나쁜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혹은 경험해 보지 않아 일반화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꺼려하였으나 좋은 점으로는 대체로 솔직하다는 점을 꼽았고, 이 외에도 서로 잘 돕고 강한 생활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 솔직함

“좋았던 점은 생각 외로 이분들이 소통하는 부분에서 솔직하고 어떤 부분은 직설적이고. 이런 게 오히려 친근감을 빠르게 느낄 수 있구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게 이분들의 장점일 수 있겠다.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좋은 점은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가식 없이 하는 태도와 방식은 좋은 점이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정이 많으시고 없는데도 주려고 하고.”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 적응력

“딱히 나쁜 점이라고 하면 경험해보진 않았는데.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여기서 한동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엄청 잘 알고 말투만 그냥 조금 어색하단 느낌은 있지만. 그냥 한국에서 잘 적응해서 살고 있구나란 생각을 했죠.”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 ■ 서로 잘 도움

“북한사람은 공동체의식, 정 문화, 같이 챙겨주고 사회생활을 할 때 조직 안에서 사회생활하고 공사를 구분하기보다 정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정이 우선이고 집단생활이 강하다 보니 서로 챙겨주고 그러는 거 같아요.”(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탈북민 분께서 또 반찬을 정말 잘하셔서 주일날 싸서 날 주기도 했고요, 이사 가는 날 사실 혼자 짐을 싸야 했었으니까 그때 짐을 많이 옮겨줘야 했는데 탈북민 부부가 와서 짐도 옮겨주고. 정말 제가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엄마 얘기를 너무나 잘 하셨는데 제가 사례금도 안줬는데 인터뷰를 수락해 주시고 또 잘 얘기해 주셔서 얼마나 고맙던지.”  
(안00, 59세, 여성, 대학원 박사수료, 연구원)

## ■ 강한 생활력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12-14시간씩 닭튀김하는 일을 하셨죠. 그냥 만나서 3-4시간 얘기했는데 배울게 정말 많았어요. 12시간씩 닭튀김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기름 앞에서. 그런데도 되게 밝으셨죠. 여기서(한국에서) 자기가 노력 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강했고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열심히 살더라고요. 참, 미국에서 반찬하던 아줌마도 탈북민들이 뭘 시키면 자기 일처럼 잘 한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단순 종업원이 아니라 자기 일처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싶어 하

더라고요. 또 젊은 친구도 한명 만났는데 혼자 왔어도 브로커 페이도 자기가 벌어서 다 갚고 자기가 또 돈 벌어가지고 식구들도 데리고 오고 결혼까지 하고 학교까지 다니더라고요. 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봐서 그런지, 나는 그래서 북한사람들 자력갱생 주체의식 굉장히 좋은 영향 미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안00, 59세, 여성, 대학원 박사수료, 연구원)

#### 4-1. 탈북민에게 상처받는 상황, 말, 행동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탈북민은 왜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을까요?

참여자들 중 일부만이 탈북민에게 상처받았던 경험을 털어놓았는데 이들의 상처받은 이유는 공통적으로 탈북민들이 “계산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필요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지00에 따르면 이것은 탈북민들의 고유한 특성이라기보다는 탈북과정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말하고 정당화하는 게 체득화 된 것이라는 나름의 분석이 있었다.

#### ■ 계산적일 때

“관계를 맺어가는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필요하면 가고 필요 없으면 안 가고.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는 꼭 필요하지 않아도 맺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저는 직접적으로 상처받은 적은 없지만 탈북민들이 매주 교회에 참가비를 많이 주는 곳으로 옮겨 다녀서, 남한교회의 통일부서 담당자들이 이 문제로 인해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취업파트, 지원파트가 따로 있는데 처음에 탈북민이 센터에 오시면 수급자로 지정이 돼요. 취업이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데 지원 받으려고 취업상황을 속이고, 사실혼 관계라 수급이 안되는 데 동거를 해놓고서도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결혼 유무, 나이에 따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에 따라서 계산을 다 해놓고 구별해서 얘기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말하고 정당화하는게 체득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4-2. 따라 배우고 싶은 탈북민의 말, 행동은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대체로 탈북민들의 솔직함과 생활력에 대해 따라 배우고 싶은 특성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밖에도 뛰어난 발표력 혹은 가족을 위한 희생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 ■ 솔직함

“솔직한 화법. 이런 걸 배우고 싶어요. 예를 들어 자기의 치부같은 부분. 북한에서 왔을 때 어려웠던 부분을 ‘이거 혹시 과장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당당하게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치부를 굉장히 솔직히 얘기해 준다는 걸 느꼈죠.”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 ■ 생활력

“생활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맡은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꾸준하게 하려는 모습들 이런 게 멋있어 보였어요.”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산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삶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에서 본받을 부분이 있다고 느꼈어요.”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좋은 점은 생활력이 강하고 열정적이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탈북민이 있었는데 매년 끊임없이 행사에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티켓을 매년 20장씩 갖다 주고 계속 초대하는 점이 열정적이었어요.”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주인처럼 일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14시간 씩 닭튀김 하던 아줌마 난 절대 그렇게 못 살 거 같아요. 북한에서 혼자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까 그게 아직도 굉장히 본능이 거의 무슨 습관처럼 남아 있는 거 같았어요. 14시간을 닭튀김 하고서는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또 나와서 일하려고 하고 이런 게 정말 개인차로만 봐야하는 건지 요소가 많이 있겠지만 그 분이 정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안00, 59세, 여성, 대학원 박사수료, 연구원)

## ■ 뛰어난 발표력

“발표력이 뛰어나요. 교회행사에 이만갑(이제 만나러 갑니다) 등 방송에 출연 중인 탈북민을 초대했는데 사전에 서로 준비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매우 뛰어나게 풍부한 내용을 발표했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 탈북민들은 발표력이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것 같더라고요.”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 ■ 가족을 위한 희생

“가족에 대해 희생하는 게 정말 남달라요.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브로커 비용을 벌어서 북한에서 가족을 데리고 오고. 아니면 거기 가족은 있다면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본인은 힘들면서도 북한으로 돈을 보내주고.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고 담보로 해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점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5. 평소에 나를 비롯한 내 주변의 남한사람이 생각했던 탈북민에 대한 생각을 말해주세요.

참여자들의 주변에서 탈북민을 인식하는 것에는 생활력이 좋고 검소한 습관 덕분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도 있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변인들이 있다고 언급한 이00와 가난한 공산주의라는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둡고 자기표현이 서툴 것이라는 부정적평가를 내린 김00도 있었다. 특별히 50대 중반의 이들에게서는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한 가난한 이미지 때문에 탈북민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면모도 발견할 수 있었다.

### ■ 긍정적으로 본다.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탈북민인데, ‘지나칠 정도로 검소하다’ 이런 얘길 해 주시더라고요. 아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남한사람들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검소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길 들었고요. 생활력이 있다. 사업에 대한 수완이 좋다는 생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한 내용인데, 외식업 성공한 분들 중엔 새터민이 있으시더라고요. 탈북 출신인데 베트남까지 확장한 전철우씨 사례라든지. 자신감도 넘쳐 보이고 아이템이 참 확실해 보였죠.”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 부정적으로 본다.

“일단 그냥 대놓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어둡고 자기표현이 서툴 것으로 생각했어요.”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 외국인이다.

“그냥 외국인 취급하는 것 같이 대하는 친구도 있고요.”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 불쌍하다.

“가난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았으니까 불쌍하죠.”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주변에서 특별히 탈북민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경우는 없었고 미국 갔다 왔더니 우리 오빠가 내가 북한학을 공부하는거가 탈북민 때문에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빠인식은 탈북민은 그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강한 거 같아요. 북한이라는 먹고살기 힘든 불쌍한 나라에서 온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안00, 59세, 여성, 대학원 박사수료, 연구원)

## 5-1. 처음에 탈북민을 직접 만나보고 느낀 탈북민은?

참여자들이 탈북민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생각은 상호소통을 통해 느낀 점 이라기보다는 탈북민의 외적인 부분, 즉 표면적인 것에 대한 인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왜소함’, ‘자기표현을 잘함’, ‘말투가 흥미로움’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00과 같이 라포형성이 빨리 되어 이질감이 없었던 점을 들기도 하였는데, 그 라포형성이 빨리 된 이유는 탈북민 쪽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상담분야쪽 역할을 꼽기도 하였다.

### ■ 이질감 없음

*“생각 외로 이질감이 없어서 깜짝 놀랐을 정도로 이질감이라고 할 것이 없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상담쪽으로 일을 해서 라포가 빠르게 형성된 것 같기도 한데, 그게 형성되면 목말랐던 게 갈증이 풀리는 듯이 풀려나가더라고요.”*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 ■ 왜소함

*“일단 키가 작아요. 왜소하고. 영양상태가 불충분 했던 것이었는데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쪽(북한)에서 삶이 힘들었다는걸 느꼈어요.”*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 ■ 자기표현을 잘함

“생각보다 밝고 자기표현을 잘하고 다정했어요.”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 ■ 말투가 흥미로움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주변에서 이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들의 말투가 마냥 흥미로웠죠.”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5-2. 오랜 기간, 여러 번 탈북민을 만나보고 현재 생각하는 탈북민은?

참여자들이 탈북민을 여러 번 만난 후 느낀 소회는 탈북민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를 좀 더 심층적인 내용들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탈북민의 삶을 이해하고, 탈북민이 우리의 통일과 사회통합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지니고 있는지, 그 중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느끼고 있었다.

## ■ 탈북민도 여러 부류가 있다.

“나이대별로 다른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더 트인것 같고요. 진취적이고. 4-50대로 가면 보수적인 부분은 있지만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탈북민도 여러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 ■ 탈북민은 먼저 온 미래다.

“앞으로 통일을 바라본다고 하게 되면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가 잘 챙겨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는,, 북한에 가본 적 없잖아요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지 상상 해 볼 수 있고. 처음엔 감흥이 없었는데. 엄청 우리가 잘 챙겨주고 신경써줘야 될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생겼죠.”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 ■ 탈북민은 남한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큰 거 같고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탈북민은 남한사람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되었죠.”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 ■ 탈북민의 삶을 이해하게 됐다.

“저는 계속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탈북과정, 정착과정, 가족이 그림다거나, 남자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가족을 데리고 오려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저는 이해가 많이 됐어요. 저도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면 저도 그렇게 되었을

거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5-3. 탈북민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다면 언제, 어떤 계기로 변화했나요?

참여자들은 탈북민에 대한 생각 변화의 계기에 대해 대화, 관찰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들이 표현한 내용의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밀반침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 ■ 대화

“계속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전혀 생각이 없다가. 처음에 만날 때 의아했거든요, 궁금증이 생기고. 만나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랑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별반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대화하면서 느꼈어요. 제가 생각지 못한걸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생각이 깊더라고요.”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그들의 얘기를 듣고 얘길 나누다 보니 그들의 삶이 공감이 되었어요.”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 관찰

“탈북민은 남한체제와 남한사람에 대해 항상 요구하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지인이 교회행사를 주관할 때 참가한 탈북민들이 술선수범으로 참가하고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며 신뢰가 쌓이면서, 아 이들(탈북민들)이 남한사회와 공동체에 이바지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변하게 됐어요.”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내가 바뀐 것은 그래 미국 가기 전에는 불쌍하게 도와줘야 하는 인식이 컸고 미국 갔을 때는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나보다 형편이 동일하거나 더 나은 사람들을 많이 보고나서.”

(안00, 59세, 여성, 대학원 박사수료, 연구원)

6. 만나보셨던 탈북민이 남한사람과 차이가 있었습니까? 차이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례로?

참여자들 중 일부는 차이가 없다고 언급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탈북민이 남한사람과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들이 언급한 차이에는 ‘감정표현이 남한사람보다 서툴다.’, ‘소통면에서 남한사람보다 직설적이다.’, ‘정체성을 남한사람보다 깊이 고민한다.’ 등이 제시되었다.

## ■ 차이 없다.

“별로 차이가 없었죠.”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 ■ 감정표현이 남한사람보다 서툴다

“남한사람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감정표현 하는데 있어서 서툴다? 어떤 부분은 좀 장벽이 있다?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탈북민들은 유독 본인의 내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감춘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일을 오래 해봤는데요, 새터민들이 이런 게 남한사람들보다 좀 더 심한 것 같았어요.”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 ■ 소통 면에서 남한사람보다 직설적이다

“일단 의사소통 방식이 다른 거 같아요. 북한분들은 직설적이고 직접적이고 말하는 거를 그대로 그냥 실천하는 스타일 같아요.”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 정체성을 남한사람보다 깊게 고민한다

“얼마 전에 만났던 친구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북에 고향을 두고 온 사람’, 이렇게 자기를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구태여 자기를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기보다 그냥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사람 그렇게 자기를 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정체성. 남한사람들은 내가 남한사람인가 고민 안 하잖아요 근데 탈북민들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안00, 59세, 여성, 대학원 박사수료, 연구원)

## 7. 지금까지 만나보거나 접한 탈북민 중 인상 깊었던 모습?

참여자들은 탈북민들의 특성에 대해 강한 생활력, 책임감 있는 모습, 열심히 사는 모습 등으로 표현했다. 여러 특징 중에서도 특히 이러한 내용들은 본인의 삶을 스스로 일구어 나가는 자립심 혹은 자립적 자세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 밝고 친화력 있는 모습

“처음 뵈을 땐 되게 수수하면서도 밝으셨던 것 같아요. 밝고 친화력이 강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는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속내를 다 털어놓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밝은 모습이 좋았어요.”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 ■ 강한 생활력 및 열심히 사는 모습

“생활력이 강하죠.”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여기 와서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까지 가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 다양한 체험 속에서 얻은 박식함

“박식하다는 느낌? 경험을 많이 해보고 다양한걸 체험해와서 그런지, 어떠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더라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발상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친구들이랑 교류하고 싶어요.”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 ■ 실천력

“고집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한 걸 꼭 실천해보요. 몸으로 실천으로 해보는 것이 특징적인 것 같고요.”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 ■ 책임감 있는 모습

“탈북민 출신 여성 목사님이신데요. 인상이 깊었고 또 만나고 싶어요. 북한사회에 남겨진 가족과 지하교인들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고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요. 그 분은 북한사회 내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어렵게 노력을 했고 그 안에서 가족과 공동체를 끈끈한 정으로 꾸려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타치고 노래하면서 극복하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 ■ 자기를 제대로 파악할 줄 아는 모습

“센터에서 같이 일할 때 탈북민인데 상담사로 일하던 분이 계시는데 여기 와서 상담심리 공부해서 상담사로 취직을 했죠. 이 분 특징이 본인의 장점 단점을 다 알고 있고.”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 헌신적인 모습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희생과 헌신성이 있었던 거 같아.”

(안00, 59세, 여성, 대학원 박사수료, 연구원)

## 7-1. 반대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탈북민이 있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참여자들 중 일부는 본인들이 경험한 탈북민에 대한 인상이 좋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탈북민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참여자들은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 편법과 거짓말 등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탈북민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 ■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

“개인차는 좀 있지만 약속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약속을 안 지키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죠.”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 ■ 편법, 거짓말

“이상한 행동하는 분도 많았어요. 편법을 얼마나 써대는지. 그래서 지원을 받는 거죠. 단체에 편지써서 받고 영농단체에 가셔도 받고 편법으로 수급도 받고 이런 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열심히 일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신병 질환인 것처럼 해서 지원을 받는 여성도 있고. 그걸 문제 삼으니까 담당자한테 와서 오물 뿌리고 차 타이어 빵구 내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무섭죠.”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8. 탈북민을 같은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탈북민을 같은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법적인 측면, 법 이외의 측면으로 나누어졌다. 법적인 측면은 헌법에 적시된 바가 그렇고 법에 의해 국민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었고, 법 이외의 측면은 언어적으로 소통이 되고,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스스로가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논리가 제시되었다.

### ■ YES

*“네. 한민족이란 생각을 많이 했어요. 크게 다르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마음과 마음의 소통, 이런 게 되었기 때문에.”*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네. 어차피 한국에 넘어와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살던 패턴을 바꾸면서 한국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한국사람이라고 봐야할 것 같아요.”*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족국가가 아니고 헌법에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있고, 수차례 탈북민을 만나 본 결과 실제로도 남한사람과 탈북민 간에 차이가 없어요.”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고 있으니까 신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9. 탈북민이 남한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탈북민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참여자들의 조언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분류해 보면 탈북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언과 다른 사람과의 상호 관계에 대한 조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참여자들이 탈북민의 어투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 자존감 회복하기

“첫 번째가. 자존감 부분. 스스로 끌어 올리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아픔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내적으로 좀 더 강해지도록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 ■ 대인관계 네트워크 형성하기

“대인관계,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 ■ 다른 것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책을 읽거나 특강을 들으면서 다른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여요. 다르다는 것 보다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양성 분야를 인지 할 수 있는 특강 이런 것도 찾아다니면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걸 습관화 하면 좋겠죠.”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 ■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기

“북한이 아닌 한국인의 정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다양한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 ■ 약속을 잘 지키고 책임감 있게 노력하기

“탈북민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책임감이 없다는 인식이 많은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 탈북민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책임감있게 일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 ■ 자립하려고 노력하기

“힘드시겠지만 받으려고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거 같아요. 독립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 자기 자신을 잘 알기

“자기가 원하는 걸 일단 알아야 할 거 같아요. 그냥 취업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 포기하지 말기

“중도 포기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 진학도 그렇고 직장도 쉽게 포기하고 그런 분들 많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기 수준에서 일할 수 있는걸 찾아서 취업하고 꾸준히 일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쓰지 않기

“내가 행복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행복까지 걱정하기보다 각자 잘 사세요. 그냥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안00, 59세, 여성, 대학원 박사수료, 연구원)

## 9-1. 또한 남한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참여자들은 탈북민들이 남한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남한 사람들 차원의 노력으로 탈북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는, 다름에 대한 이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노력하기로 나타났다.

### ■ 다름에 대한 이해하기

*“남한사람들 역시 북한 새터민 분들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남한 사람들 역시 마음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편견과 다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 ■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편견을 버리고 좋은 시선. 긍정적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이해해야겠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북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심리적 변화,*

정서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잘 이해해야 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통일할 때 지름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 ■ 탈북민을 동등한 국민으로 대하기

“남한사람은 탈북민들을 넓은 의미의 동포로 생각하는, 조선족이나 고려인처럼 생각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탈북민들은 조선족, 고려인 같은 넓은 의미의 동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탈북민들을 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은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기 때문에 탈북민을 이등국민화하는 그런 의식이 없어지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 ■ 탈북민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기

“남한사람 중에는 탈북민에 대해서 통일에 대한 거대담론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또 권력관계로 보는 남한사람은 결국 다 나가 떨어지는 거 같아요. 탈북민 그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냥 한 개인으로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향후 북한사람들과의 교류를 염두에 두고 북한사람에 대한 생각

## 10. 북한을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은 북한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힘듦, 가난함, 배고픔, 이중적, 독재와 같은 단어들이 북한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이유였다.

### ■ 힘들고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

“솔직히 북한이라는 나라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 자체는 힘들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원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애리는. 힘들고 가난하고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 경로는 티비 언론 매체에서 이만갑(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런데서 북한실상에 대해 말하니까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가난하고 독립적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것은 탈북민을 통해서도 생생히 들을 수 있고 통계를 봐도 그렇구요.”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 ■ 남한과는 엄연히 다른 사회주의 국가

“북한이라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쨌든 우리랑 체제가 다르고. 그냥 우리와는 다른 나라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

본주의고 그쪽은 사회주의 국가고. 엄연히 다르죠.”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 ■ 독립적인 나라

“독립적인 나라라는 의미는 1960년대 이후 어떤 동맹에도 종속 되지 않은 나라니까요.”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 ■ 이중적인 나라

“이중적인 나라, 국가도 이중적이고 사람도 이중적이고 사회주의 와 시장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나라.”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 독재국가

“독재국가죠. 한 집안이 한 나라를 사유화한 그 정권의 유지가 1순위인.”

(안00, 59세, 여성, 대학원 박사수료, 연구원)

## 11. 북한사람에 대한 생각은?

참여자들이 북한사람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긍정적, 판단유보, 부정

적 의견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측면은 유대인보다 더 똑똑한 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작용하였고, 부정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하층민과 일반주민은 불행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였다.

## ■ 긍정적

“유대인보다 더 똑똑한 민족. 한민족이다란 생각을 하면요, 북한 사람 역시 같은 한민족이라서 그런 지 충분한 역량과 자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사람들이 역량이 있는 분들이고 자금적으로만 받쳐주면 성공여지가 크다고 보여요.”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 ■ 판단유보

“잘 모르겠어요 아직. 탈북민 통해서 북한사람들이 이럴 거라 추측할 수 있겠지만 직접 만나보지 못했으니.”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 ■ 부정적

“하층민이랑 일반사람은 불행할 거 같아요. 평양이나 개성이나 출신성분 좋은 분들은 자본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분들은 행복할 것 같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불행할 것 같고. 지배세력이 갖고 있는 권력이 강하니까 물질적인 힘에 의한 행복도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이동의 자유, 계층이동의 자유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행복도 모르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12. 북한주민들을 같은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자들은 이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세 가지 입장을 보였다. 그렇다고 보는 경우는 언론매체의 영향과 헌법에 적시된 내용에 근거한 것이었고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한국사람이라기 보다 동포라는 개념이 정확할 것이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분단되어 교류와 왕래가 자유롭지 않은 이유를 드는 경우도 있었다. 이 외에도 지향점과 현실적인 여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참여자의 의견도 있었다.

### ■ Yes

“일단, 어쨌든, 같은 한국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이 움직이고 있어요. 매체 이런걸 접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북한주민은 같은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북한주민은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분단

으로 공민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을 뿐이죠.”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 ■ No

“같은 한국사람이라기 보다 엄밀히 보면 동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랑 똑같은 말을 쓰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전쟁이 생기  
기 전까지는 우리랑 같은 한반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포  
라고 생각하는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아니요. 물리적으로도 갈 수 있지 않고 왔다갔다 할 수 없고 분  
단 이후에 정체성도 서로 다르게 발전되었고.”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 Yes+No

“예전에는 한민족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한민족이긴  
한데 너무 달라져 있고.”  
(안00, 59세, 여성, 대학원 박사수료, 연구원)

12-1. 혹시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동일하다고 생각해 본 적  
이 있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참여자들 중에는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동일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특이점은 동일시하는 입장을 가진 참여자들은 북한과 관련된 학문에 대해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었고 언론매체를 통해 생각을 정리한 경우였으며 동일시하지 않는 경우는 북한과 통일에 대해 깊이있게 공부했다는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 ■ Yes

“그냥 생각 없이 하나로 뭉쳐서 무의식중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북한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무의식중에 고정관념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런 내용이 자주 나오다 보니.”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북한정권을 유지하고 이끄는 사람도 북한주민이라고 생각해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정권을 이끌어 가는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 ■ No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정권은 항상 노동당 정권인데 노동당 당원은 북한주민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당원 아닌 주민이 더 많기 때문에 정권과 주민은 동일하지 않은 거죠.”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정권은 정권, 주민은 주민인거 같아요.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사회구조 속에 주민이 있는 거지만 정권의 고민과 주민의 고민은 다른거 같아요. 생활도 다르고”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13. 한반도에 통일 및 사회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참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모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체로 경제적 편익이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혹은 시너지효과를 꼽고 있었는데 재미있는 입장으로는 분단체제가 만들어놓은 프레임이 지겹고 식상하다는 반응이 있었다.

#### ■ Yes

“지금 우리나라에 사회적 문제를 봤을 때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을 봤을 때 통합이 되고 통일이 되면 시너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나라의 경쟁력 부분에서는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과정에서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건 지금 각자가 위기니까요. 이 위기를 통일을 통해 우리가 함께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역

시나 언론매체를 접하면서 생각하게 된 거구요. 새터민이 나오는 예능, 뉴스, 팟캐스트 경제분야, 이런 걸 접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저는 일단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봐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반도가 합쳐도 땅이 크진 않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점. 남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각각 달라요. 통일되면 경쟁력이 있죠. 주변 강대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통일이나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봐요.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통일이 필요성을 느껴요.”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통일로부터 얻은 이익이 통일비용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너무너무 필요해요. 너무 다르고 지금까지 관심 없었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하지 않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간극이 너무 큰데, 이걸 빨리 메꿔야 할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경제적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통일이 해답이에요.”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통일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분단체제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지겹고 힘이 들어요. 뭐만 하면 종북 친북 이런 거 듣는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요. 지겨워 죽겠어.”  
(안00, 59세, 여성, 대학원 박사수료, 연구원)

#### 14. 탈북민 및 북한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해 나를 비롯한 남한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참여자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내놓았다. 대체로 개인적인 노력을 언급해 달라고 하였는데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을 시도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 ■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잘 살게 만드는데 도움주기

“오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지 북한에서도 남은 가족이 입소문을 통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응하시는 분들이 북한사람들이 봤을 때 롤모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 ■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남한사람들 개개인은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을 버리고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긍정적으로 가야될 것 같고.”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 ■ 토론 해보기

“토론을 좀 초등학교 때부터 했음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고.”

(하00, 37세, 여성, 대졸, 직업상담사)

## ■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을 잘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이해. 북한주민과의 교류를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전 그게 첫 번째 단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걸음부터 제대로 실현을 할 수 없다면 사회적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봐야죠.”

(이00, 33세, 남성, 박사과정생, 회사원)

## ■ 다양한 각도에서 탈북민 관련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탈북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탈북민이 임대아파트가 배정된 지역에만 주거혜택이 주어지고 극히 제한된 직장에만 취업과 교육을 위한 배려가 주어지는데 보다 폭넓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 말고도 남한사람과 탈북민이 섞어 살아야 하구요. 직장에서도 고용장려금이 더 확대되어서 중소기업 등에서도 탈북민을 보다 폭넓게 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

야 합니다.”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 북한과의 경험의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대북제재와 상관이 없으므로 즉각 재개되어야 하고 남북 간의 경험도 순차적으로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주민에게는 보다 많은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고 남북 간에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영역에서 만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00, 55세, 남성, 대학원 석사졸업, 자영업)

■ 정치중심이 아니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교류해야 한다.

“정치 중심이 아니고 대중들이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 시민, 우리 대중이 움직이는 마음,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죠. 북한주민의 생활이 중요한데 맨날 언론에서는 김일성 김정은만 얘기하고. 탈북민 힘든거만 알리고. 그래서 시민들이 중심이 된 교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00, 37세, 여성, 대학원 석사수료, 연구원)

■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시민교육인데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부터 각각 있는 교회에서 북한 연구자들이 들어가서 공부 좀 시키고 했으면 좋겠어요. 통일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여서 역사라는 건 팩트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니깐요. 대중  
눈높이 교육이 필요해 보여요.”

(안00, 59세, 여성, 대학원 박사수료, 연구원)

## 남북한 사회통합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과 향후 과제

정유진

미주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남북한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이 가지는 간극을 좁혀 나가기 위해서는, 다각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첫 걸음은, 보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문제의 장(長)을 넓혀나가는 데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220만 명의 외국인들은 남북한 사회통합과 과제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본 장에서는 남북한 사회통합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과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의 외국인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남북한 사회 통합에 대한 고찰을 공유할 수 있도록, 되도록 남북한 사람들 모두와 접촉해본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

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했다. 개인의 신변적 이유와 정황적 부분으로 인해 대상자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표기하되 사례자 간의 구별을 위해 국적을 기반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각주: 본 고에서 사례자들이 인터뷰 중 언급한 ‘North Korea’의 공식명칭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나 표기의 편의상 ‘북한’으로, ‘South Korea’의 공식명칭은 ‘대한민국’이나 ‘남한’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표 5-1] 외국인 인터뷰 대상자 목록

| 인터뷰 대상자 | 국적       | 연령  | 직업          |
|---------|----------|-----|-------------|
| A       | 미국       | 50대 | 언론인         |
| B       | 영국       | 30대 | 교수 및 NGO연구원 |
| C       | 미국       | 40대 | 박사과정생 및 강사  |
| D       | 유럽       | 30대 | 인권단체        |
| E       | 미국 (한국계) | 30대 | 인권단체        |
| F       | 미국       | 20대 | 직장인         |

## 1. 외국인이 만난 북한, 그 상상과 실제

북한은 폐쇄적인 공산주의 국가의 특성으로 인해, 그들의 자세한 정보나 실제 생활상 면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북한이라는 국가와 그곳에 살고 있는 사

람들에 대해 가지는 인상은 편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실제로 인터뷰에서 터놓았던 부분이다. 또한, 이로 인해 가장 큰 생각의 반전(反轉)을 맞았다고 답했다.

“북한 사람들에 대해 서구나 남한의 미디어에서 딱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군사주의적(militaristic)이고 광적인(fanatical) 측면이 있다거나, 약하고 궁핍할 것 같은 모습이랄까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만나보고 가르쳤던 북한인들은 그것과 많이 달랐어요. 훨씬 넓고 다양한 성격과 존중할만한 특성을 가진 개개인이었거든요.”

(A, 미국, 50대, 언론인)

“다소 무지하게 들릴 줄 알지만, 솔직히 저는 북한 사람들이 다 ‘빨갱이’ 이거나 ‘세뇌당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 그런데 탈북자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실제로 북한 관광을 다녀온 다음에서야 생각이 바뀌었죠. 무엇보다 결국 ‘사람은 사람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들이 ‘미친 사회주의자일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아예 사라졌죠.”

(B, 영국, 30대, 교수 및 NGO연구원)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은 북한인들이 보이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에서 더 나아가 그들만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 흥미로운 인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북한 사람들을 만났던 건,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하게 바뀌었던 큰 계기였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북한에서 몇 개월 살면서 더욱 알 수 있었죠. 굉장히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사회이지만, 정말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들만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것어요.”

(C, 미국, 40대, 박사과정생 및 강사)

“북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맞춰주면서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끔 느끼는 건데, 패턴이 있는 듯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식량지원 사업으로 인해 북한으로 들어갈 때 느꼈어요. 한 번은 모든 물건 반입에 대해 강경할 때도 있는데, 또 다른 때에는 그냥 가라고 해요. 뭔가 기준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달 까요. 완고한 성격에서 오는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E, 미국 한국계, 30대, 인권단체)

## 2. 남한과 북한이 공유하는 것

그렇다면,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 모두를 만나본 외국인들은 남북한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느꼈을까? 타자의 입장에서 외국인들은, 그들이 바라본 남한과 북한인들의 모습들 안에 놀랍

게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영어가 모국어인 영미권 출신의 외국인들은 공통적으로 남북한이 공유하는 언어가 가장 핵심적인 유사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본적으로 소통의 수단인 언어가 같다는 것은 남북한이 공유하는 가장 큰 도구이자, 원활한 통합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근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특성적인 부분에서 남북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측면은 무엇일까? 외국인들이 가장 흥미롭게 꼽은 공통점은 가족중심의 문화와 공경문화에 있었다.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대가족과의 끈끈한 관계에 큰 가치를 둔다는 점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녀들은 또 부모님들을 부양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 말이에요.”*

*(C, 미국, 40대, 박사과정생 및 강사)*

*“제가 친했던 러시아어 강사가 있었어요. 1990년대에 김일성대학에서 공부했던 분이었죠. 그분이 말하기를, 남북한이 공유하는 문화의 기저는 정말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이 많은 분들과 선생님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었어요.”*

*(A, 미국, 50대, 언론인)*

이와 같은 유교 전통적인 문화는, 간혹 나이가 서열이 되는 위계질서의 모습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이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이

질적으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들은 흥미롭게도 이러한 전통 문화적 특징이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목격되었다고 말한다.

“제가 북한사람들과 함께 공적인 자리에서 협상을 해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보다 나이 많으신 협상 파트너 분들이 좀 기분 나빠하는 기색을 보이셨어요. 그럴 때는 미국식 스타일로 대하기 보다는 한국식 문화에 맞춰서 보다 겸손하고 낮춰서 들어가고자 했죠.”

(E, 미국 한국계, 30대, 인권단체)

뿐만 아니라, 음주 문화를 즐기고 이러한 여가 시간 속에서 정을 나누는 것을 남북한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을 꼽기도 한다.

“그 러시아어 강사분이 북한에서 있으면서 또 흥미로웠던 것이 있다면, 직장 동료와 친구와 술을 마시며 정(fondness)을 나누는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한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죠.”

(A, 미국, 50대, 언론인)

이외에도 남북한 사람들 모두 근면 성실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외국인도 있었다. 또 다른 외국인 역시, 남북한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일에 열정을 다하고 이를 통해 최대한 성취하고자 하는 능력과 태도를 강조했다.

### 3. 같은 듯 다른 남북한 사람들

그렇다면, 남북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상이한 측면을 느낀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개방성을 그 답변으로 꼽았다.

*“남북한 사람들이 많은 공통점을 가진 것 같지만, 또 개방성에 있어선 달라요. 남한 사람들이 훨씬 외부 세계에 열려있고 개인 주의적인 측면이 있어요. 남한 사람들은 세계화를 포용하는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은 이와 다르게 그들만의 ‘주체사상’이란 이 테올로기 안에 외부와 단절되어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 같이 보인달까요.”*

*(A, 미국, 50대, 언론인)*

이를 두고, 시기적으로 남한의 예전 모습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B (영국, 교수 및 NGO연구원, 30대) 역시, 북한의 가치관과 문화를 두고 ‘이전 세대의 남한’이라고 강조했다. 50년 전 문호를 개방하기 전의 남한 모습이 지금의 북한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외국인은 그가 직접 만난 북한 사람들이 보이는 비개방성이 단순히 외부 문화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보이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보이기도 했다고 답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얼굴은 한국인이라 대화와 말도 통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과 진심이 통한다고 생각했던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와 둘만 있을 때 보이는 모습이란, 다른 관계자들과 다 같이 있을 때와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완전 깜짝 놀랐죠. 사적인 자리에선 상대방에게 호의를 보이다가도, 공적인 자리에선 부드럽게 보이면 안 되는지 버럭 화를 내는 아예 다른 사람으로 변한달까요.”

(E, 미국 한국계, 30대, 인권단체)

앞서 언급했던 남북한이 가진 공통의 특징인 언어는 때론 간극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외국인들은 응답했다. 북한 언어는 외래어의 유입으로부터 폐쇄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생기는 남북한 사람들 간의 소통 장애를 외국인들은 지적한다.

“제 북한 친구는 요새 인터넷 용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남한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멘붕’이나 ‘강추’라는 말들이요. ‘버스터미널’이라는 말도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기도 했어요.”

(B, 영국, 30대, 교수 및 NGO연구원)

“북한사람들은 콩글리쉬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을 테니까요.”

(D, 유럽, 30대, 인권단체)

#### 4. 남북 사회통합의 제약과 과제

최근 들어 남북한 관계에 화해무드가 들어서며 국민들의 인식은 많이 변화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불과 3년 전(2016년)만 하더라도 국민 3명 중에 1명은 남북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외국인들 역시 이러한 남북한 사람들의 통일의지에 대해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 사실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통일을 갈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저의 생각이 순진했다는 것이 완전히 깨진 계기가 있어요. 남북한 간의 축구 친선 경기가 있던 시점이었죠. 저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대결처럼 세기의 경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랐던 것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도 경쟁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통일을 향한 경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보통의 수많은 게임 중 하나였던 거예요. 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B, 영국, 30대, 교수 및 NGO연구원)

북한 사람들에 대해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역시, 남북한이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는 데에 장애적 요소가 된다고 꼽는 사례자도 있었다.

“많은 경우에,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겪어온 사회적 제약과 교육 및 상황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북한 사람들을 볼 때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1차원적인 시각이라고 봐요. 그들이 가진 비정치적이고 탈 정치적인 측면을 함께 봤으면 해요.”

(C, 미국, 40대, 박사과정생 및 강사)

“제가 함께 일했던 한 북한 사람이 슬픈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본인이 다니던 종교기관을 통해 알게 된 남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꼭 입으라’며 선물 꾸러미를 건네주었다고 해요. 집에 와서 열어보니 허름한 속옷과 헌 옷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요. 처음엔 이렇게 오래된 헌 옷을 나누는 게 남한의 문화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당연히 사실이 아니었죠. 그녀는 자신이 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동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더욱 수치심과 모멸감을 올라와 서러웠다고 했어요. 마음이 아팠죠.”

(F, 미국, 20대, 직장인)

더불어, 이와 같이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이 차별이라는 사회적 억압으로 변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탈북자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던 한 외국인인, 한 탈북민이 그들의 억양 때문에 임금인상 기회를 동일하게 받지 못했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통합과 평화를 위하여

외국인들은 남북한의 사회통합은 ‘그들의 문제’라고 선을 긋다가도,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깊은 고민이 담긴 대안을 제시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분단의 역사를 가진 한반도에 살아가는 외국인으로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리적 요인에 기인한다. 더불어, 인터뷰에 응한 외국인들이 모두 남북한 사람들과 접촉해왔다는 공통적 전제가 그들을 남북한 이슈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데에 실질적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좀 더 다양한 북한 사람들이 차차 남한의 TV 브라운관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때에 등장하는 북한 사람들은 좀 더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실제 그들의 성격과 부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남한 사람들이 그들을 안보위협에 떠는 난민으로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A, 미국, 50대, 언론인)*

외국인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 각각에게 주어진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3만 명에 이르는 현 시점에서, 한국으로 탈북하는 북한 사람들 역시도 진정한 통합을 위해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북한 사람들은 ‘코리안 드림 (Korean Dream)’은 없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현실은 결코 KBS드라마와 같이 모두 화려하진 않아요. 그리고 금전적 부분에서 절약하는 습관을 다소 어렵겠지만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한사람과 탈북민들 모두와 함께 어우러지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성공을 쟁취해 내길 바라요.”

(B, 영국, 30대, 교수 및 NGO연구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한 사람들은 어떠한 측면을 생각해보아야 할까? 외국인들은 공통적으로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사람들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지적한다.

“북한 사회와 사람들에 대해 남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배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북한사람들이 남한의 음악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에 대해 가지는 관심이 크더라고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회에 대해 관심 가지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아요. 탈북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잘못된 이해부터 고쳐 나갔으면 해요.”

(C, 미국, 40대, 박사과정생 및 강사)

“남한 사람들에게는, 통일에 대해 좀 더 긍정적 측면을 보도록 노력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낮은 결혼율과 인력난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좀 더 학습하러

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복지 천국에 살고 있다는 건 편견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남한에는 약 3만 명의 탈북자가 있다고 들었어요. 만약 남한사람들이 그들과도 어울리지 못한다면, 통일 때는 과연 사회통합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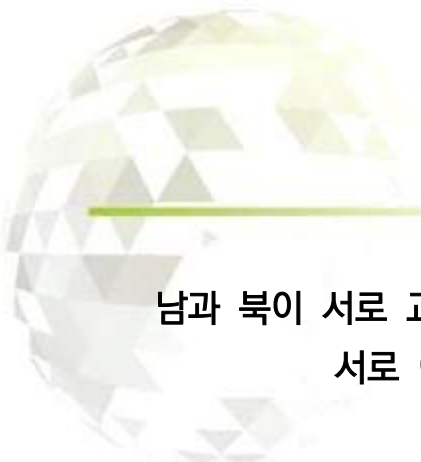
(B, 영국, 30대, 교수 및 NGO연구원)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재차 강조하는 것은 교육에 있었다.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과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나, 제3자적인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에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인의 삶’에 대한 교육이 미비한 것은 다소 의아했다는 것이다.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그들이 살아온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그들을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전언이다.

각기 살아온 배경과 기반은 다르지만 외국인들은 모두 남북 사회 통합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의견과 경험을 나누며, 보다 실질적인 해결지점을 모색하고자 했다. 보다 다각적인 목소리와 아이디어가 한 데 모일 때에, 한반도에는 균열과 분열이 아닌 진정한 통합과 평화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 제3부

# 남북한은 어떻게 이웃으로 살아갈까



## 6

###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려면, 남한주민과 탈북민이 서로 이웃으로 살아가려면

현인애

북한이탈주민, 남북하나재단 이사

남과 북은 문화적 차이의 실상은 어떠한가? 남과 북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이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조사 연구에 의하면 남한주민들은 문화적 차이에 대해 두 가지 시각으로 보고 있다. 하나는 남과 북이 한 민족이고 언어도 같으므로 큰 차이가 없으리라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남과 북이 너무 오랫동안 갈라져 있었고 또 이념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인식이다. 연구에 의하면 남과 북은 많은 면에서 너무도 서로 닮은 면이 많다. 그러나 적지 않은 차이도 있다.

오늘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문화차이는 언어갈등과 종교갈

등이다. 남과 북의 언어는 같은 언어이다. 그러나 방언수준에서의 차이가 있다. 북한 말과 남한 말의 차이는 경상도 말이나 제주도 말이 서울말과 다른 것과 같다. 하지만 탈북민이 언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언어를 이해 못하는 불편보다 언어로 인해 탈북민이라고 낙인 받는 것에서 오는 면이 더 크다. 북한주민들은 종교가 없으므로 종교적 대립의 조건도 없다. 북한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종교적 수준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지만 실제로 북한주민들이 내면화한 주체 이데올로기는 종교적 신념에 비할 수 없이 약하다.

그러나 남북은 국가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70여 년간 분단되어 있었다. 특히 북한의 폐쇄적 상황으로 인해 북한은 극도로 고립되어 있었지만 남한은 세계에 개방되어 있다. 그러므로 남북주민들은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실감하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려면, 남한주민과 탈북민이 서로 이웃으로 살아가려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를 극복해야 한다. 남북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북한이나 탈북민의 일방적인 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남북이 다 같이,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그리고 탈북민들이 모두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접촉과 대화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북한과 접촉은 어렵지만 탈북민과 접촉

은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하다. 탈북민과 친해질 수 있다면 북한주민과 교류도 가능해진다. 그러려면 자꾸 만나야 한다. 그리고 대화를 해야 한다. 탈북민과 남한주민이 서로 마음을 열어야 한다.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발전된 나라, 큰 나라는 상대방이 자기의 문화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문화를 알잡아 보고 무시한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뒤떨어졌다고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별적인 사람과 접촉에서 받은 상처를 남한주민 일반으로 확대하고 북한문화만 고집하는 탈북민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서로의 반발을 야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결국은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

문화적 차이를 일반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꼭 같을 수는 없다. 문화적 차이는 집단적일 뿐만 아니라 개별적이다. ‘북한주민은 이럴 것이다.’, ‘남한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단정하고 대하면 서로 사귄 때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같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존중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문화적 차이가 다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독재적인 정치문화나 남한의 극단적인 개인주의문화를 존중해야 할까? 아마 대부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보편적 가치에 위배되는 문화는 지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남과 북의 좋은 문화를 적극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이 서로 알아가기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남한에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을 떠나 다른 국가에서 살며 일하는 사람도 많다. 세계 각국의 문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남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남한사회가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게 되면 북한문화를 수용하기도 쉬울 것이다.

우리가 진행한 연구는 남북이 서로 알아보기 위한 노력에서 하나의 작은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걸음이 이어져 통일을 향한 노정이 완성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작은 걸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이러한 걸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PSCORE**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9 791106 666310  
ISBN 979-11-966663-1-6 (PDF)

비매출 / 무료